

한국과 아세안,
우리는 친구

ASEAN and Korea, We are Friends

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BRUNEICAMBODIAINDONESIA**LAOS**MA
 LAYSIA**MYANMAR**PHILIPPINES**SINGAP**
 ORE**THAIL** 한국과 아세안, 우리는 친구
 CAMBODIAINDONESIA**LAOS****MALAYSIA**
 MYANMAR**PHILIPPINES****SINGAPORE**THA
 ILAND**VIETNAM**KOREA**BRUNEI**CAMBO
 DIA**INDONESIA****LAOS****MALAYSIA**MYANM
 ARPHILIPPINES**SINGAPORE**THAILANDV
 IETNAM**KOREA****BRUNEI**CAMBODIAINDO
 NESIA**LAOS****MALAYSIA**MYANMARPHILIP
 PINES**SINGAPORE**THAILAND**VIETNAM****K**
 ORE**BRUNEI**CAMBODIA**INDONESIA****LA**
 OSMALAYSIA**MYANMAR**PHILIPPINES**S**
 NGAPORE**THAILAND**VIETNAMKOREA**B**
 R**UNEI****CAMBODIA**INDONESIA**LAOS****MAL**
 AYSIA**MYANMAR**PHILIPPINES**SINGAPO**
 R**ETHAILAND**VIETNAM**KOREA****BRUNEI**C

ASEAN and Korea, We are Friends



ASEAN-KOREA CENTRE

Contents

한국과 아세안

- 07 아세안 소개
- 09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아세안 회원국

- 16 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
- 23 캄보디아 CAMBODIA
- 30 인도네시아 INDONESIA
- 37 라오스 LAO PDR
- 44 말레이시아 MALAYSIA
- 51 미얀마 MYANMAR
- 58 필리핀 PHILIPPINES
- 65 싱가포르 SINGAPORE
- 72 태국 THAILAND
- 79 베트남 VIETNAM

한국과 아세안 문화 교류

- 87 한국과 아세안 교류사
- 93 아세안 음식 문화
- 100 아세안과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 107 용어 정리
- 111 아세안 퀴즈
- 116 한-아세안센터

asean



아세안 소개

INTRODUCTION OF ASEAN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ASEAN-KOREA REL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과 발전을 목표로 지역 국가 간 협력을 위해 1967년에 창설되었다. 현재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5억 9천 6백만 명이고 총 GDP는 1조 8천 5백억 불(2010년)이다. 교역 규모는 2조 1천 2백억 불(2010년)에 달하며 고도성장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성공적인 지역 협력체로 발전하였다.

아세안은 1997년에 ‘아세안 비전 2020ASEAN VISION 2020’을 발표하고, 아세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아세안 창설 40주년을 맞은 2007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이 채택되었다. 2015년까지 단일시장과 생산 기반을 통한 경제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아세안은 2008년 12월, 아세안 헌장 발효와 함께 통합 노력을 가속화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ASEAN+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과 더불어

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아세안 지역 외의 주요국을 포괄하는 협의체를 주도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이고, 외교적인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세안+3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매년 아세안정상회의(ASEAN Summit)를 개최하고 있다. 1997년에 창설 30주년을 맞은 아세안은 아세안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를 초청하여 ‘ASEAN+3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이 세 나라는 동아시아의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가까운 이웃 국가들이다. 매년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도 함께 열리고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숫자로 본 아세안

아세안 창립 : 1967. 8. 8.
 10개 회원국 총 인구 : 5억 9천6백만 명
 총 면적 : 4, 435, 830 km²
 GDP : 1조 8천 5백억 불(2010년)
 총 교역량 : 2조 1천 2백억 불(2010년)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asean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 200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슬로건

Partnership for Real, Friendship for Good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에 대화 관계를 수립한 후, 2004년부터 포괄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안보 · 경제 · 사회 · 문화 및 인적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그리고 2009년 3월, 양 지역 간의 경제 및 사회 문화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 국제기구 한-아세안센터를 설립했다.

그 후 한국과 아세안은 대화 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여 같은 해 6월, 제주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한국과 아세안 각국 정상들이 다함께 모여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며 미래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신아시아 외교’ 구상과 더불어 2010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한국과 아세안의 상호 협력관계 증진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

발전 연혁

- 1989** 대화관계 수립 (Dialogue Partnership)
 - 1997** 제1차 ASEAN+3 정상회의 ASEAN+3 Summit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 2004**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공동 선언 (11월, 라오스 비엔티안)
 - 2005** 한-아세안 행동 계획 채택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2007** 한-아세안 FTA 상품 협정 발효 (7월)
 - 2007** 한-아세안센터 설립 양해각서 서명 (11월, 싱가포르)
 - 2009** 한-아세안센터 창립 (3월, 서울)
 - 200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6월, 제주)
 - 2009**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발효(5월), 투자협정 발효 (9월)
 - 2010**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10월, 베트남 하노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 채택 (10월, 베트남 하노이)
-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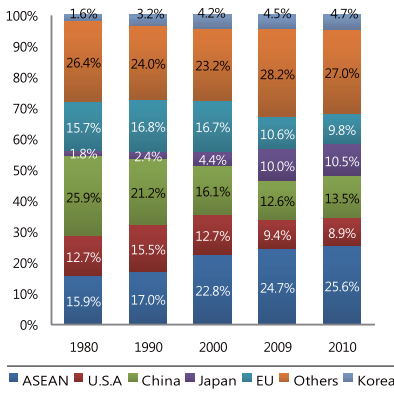
경제 분야에 있어서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교역 지역이며 한국은 아세안의 5대 교역 상대국이다. 2011년 한-아세안 사이 교역액은 1,250억불(수출 : 719억불, 수입 : 531억불)에 이른다.

또한 2009년부터 한-아세안 FTA가 전면적으로 실현됨에 따라 양자 간 교역 규모는 한-아세안 FTA 상품 협정 발효 이후 1년 차(2007년 6월~2008년 5월) 대비, 발효 4년 차(2010년 6월 ~ 2011년 5월)에 우리나라의 대(對) 아세안 교역량은 약 60.8% 증가한 1,068억 불 수준에 이르며, 수출은 68.3%, 수입은 52.2%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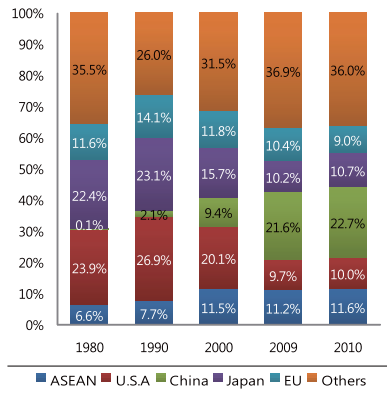
천연자원이 풍부한 아세안은 한국의 원유, 가스, 석탄, 팜 오일, 주석 등 에너지, 광물자원 및 원자재의 주요 공급원이다. 아세안은 2015년까지 단일 시장과 생산기지 경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 경제 성장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과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동향

ASEAN의 주요 무역 파트너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가까운 이웃

사회·문화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교류 협력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 및 언론인 교류를 비롯한 인적 교류와 공연 예술 축제, 전시회 개최와 같은 문화 교류 등을 통해 언어와 풍습이 다른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를 더 쉽게 이해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다.

아름다운 천연 관광자원이 많은 아세안 국가로 여행하는 한국 관광객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제 아세안은 한국 관광객들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 상호 방문객은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연간 4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번영하는 한국과 아세안

최근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135만 명(2010년)을 넘어섰다. 그중 약 20%가 동남아 국가 출신으로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

고 있다. 이제는 동남아 국가 출신의 국민들을 우리 이웃으로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동남아 음식과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 드라마, 대중음악, 패션 등을 즐기는 한류가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한국 문화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과 아세안은 문화적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가까운 친구로서 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해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태국의 한류 패스트푸드 광고



가수 '비'의 베트남 공연

공적 개발 원조 현황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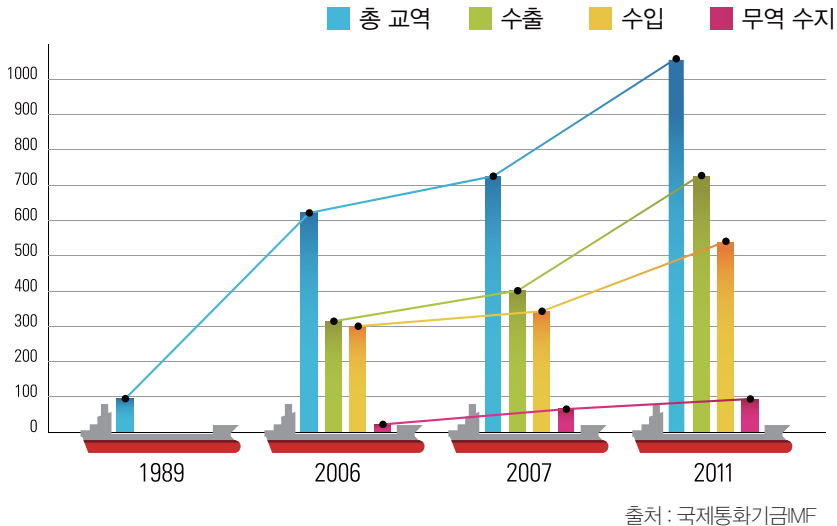
한국은 지난 1995년 세계은행으로부터 받은 개발차관을 마지막으로,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번째 사례이다.

그리고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13년 만인 2009년 11월 원조 선진국 클럽인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한국 정부는 '새로운 아시아 외교'의 핵심 대상 지역인 아세안의 경제 통합 가속화와 아세안 안에서의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한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2003~2007년 500만 불 지원에 이어 2008~2012년 및 2013~2017년에 각 500만 불을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IAI의 주요 기여국으로 부상했다.

한국과 아세안 무역 규모 동향

한국과 아세안 사이 총 교역액은 1989년 대화 관계 수립 당시 82억불이었으며 2011년에는 1,250억불로 늘어나 지난 20여년 동안 약 15배 증가했다.



숫자로 본 한-아세안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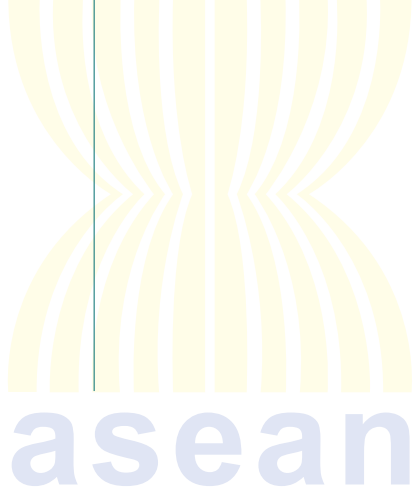
- 한국과 아세안 무역 규모 1,250억 불
- 수출 719억불, 수입 531억불 (2011년)
-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교역 지역 (중국에 이어 2위)
- 한국은 아세안의 3대 교역국
- 한국의 아세안 국가 건설 수주액 717억 불(2010년 누계)
-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건설 수주 시장
- 건설 수주는 중동에 이어 두 번째
- 한국과 아세안 상호 방문객 수 450만 명(2011년)

아세안 회원국











ASEAN Member States



- 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
- 캄보디아 Cambodia
- 인도네시아 Indonesia
- 라오스 Lao PDR
- 말레이시아 Malaysia
- 미얀마 Myanmar
- 필리핀 Philippines
- 싱가포르 Singapore
- 타이 Thailand
- 베트남 Vietnam




아세안 주요 현황

국가별		면적 천km ²	인구 백만 명	GDP 십억 달러	1인당 GDP 달러
ASEAN		4,436	596.3	1,852.5	3,107
	Brunei Darussalam	6 (경기도 절반)	0.4	13.0	31,239
	Cambodia	181 (한국의 약 1.8배)	14.3	11.6	814
	Indonesia	1,860 (한반도의 9배)	234.4	706.7	3,015
	Lao PDR	237 (한반도의 1.1배)	6.4	6.3	984
	Malaysia	330 (한반도의 1.5배)	28.3	238.0	8,423
	Myanmar	677 (한반도의 3배)	61.2	43.0	702
	Philippines	300 (한반도의 1.3배)	94.0	188.7	2,007
	Singapore	0.7 (서울시 605.5km ²)	5.2	222.7	43,117
	Thailand	513 (한반도의 2.3배)	63.9	318.9	4,992
	Vietnam	331 (한반도의 1.5배)	88.3	103.6	1,174

출처 : 국제통화기금 IMF, 아세안 사무국 ASEAN Secretariat 2010년

대한민국 주요 현황

		면적 천km ²	인구 백만 명	GDP 십억 달러	1인당 GDP 달러
	The Republic of Korea	100	49	1,007.1	20,591

출처 : 국제통화기금 IMF, 국가통계포털 KOSIS 2010년

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

아녕하 까사르?
“안녕하세요?”

BRUNEI



아시아 황금 왕국



가운데 날개는 정의와 평온, 번영, 평화를 상징하고 초승달은 이슬람을 상징한다. 양손은 정부의 복지, 평화, 번영 추구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며 황색은 국왕, 흰색과 흑색은 협정에 서명한 왕족을 뜻하고 있다.



국명 : 브루나이 다루살람 Brunei Darussalam
위치 : 보르네오 섬 서북 연안에 있으며 동부 말레이시아 사라와크 주에 의해 양분
면적 : 5,765km² (경기도의 약 1/2)
인구 : 417,000명 (2010년)
수도 : 반다르 세리 베가완 Bandar Seri Begawan
정부 형태 : 이슬람 절대세습왕정제
국왕 : 하사날 볼키아 Sultan Haji Hassanal Bolkiah
언어 : 말레이어(공용어), 영어, 중국어, 및 기타 토속어도 사용
주요 민족 : 말레이계 (67%), 중국계 (15%), 토착인종 (6%), 기타 (12%)
종교 : 이슬람교(국교이나 기타 종교도 인정)
화폐 단위 : 브루나이 달러 Brunei Dollar

브루나이의 정식 국가 명칭인 ‘브루나이 다루살람 Brunei Darussalam’은 ‘평화의 집’이라는 뜻이다. 경기도 절반만 한 크기의 국토에서 나오는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을 수출하여 1인당 GDP 31,239 달러(2010년 기준)를 자랑하는 부국이다. 북쪽은 남중국해와 접하고 있으며 보르네오 섬 북서부에 자리를 잡고 있는 브루나이는 국토의 대부분이 열대림으로 덮여 있으며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현대적인 시설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브루나이는 독실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나라이다.

1. 우리나라와의 관계

브루나이와 한국 사이의 공식 외교관계는 1984년 브루나이의 독립과 동시에 수립되었다. 브루나이는 UN 등 주요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을 지지해온 전통적 우방국이다.

한국과 브루나이의 연간 교역액은 16억불(2010년)에 달하며 한국은 브루나이에 자동차, IT, 견직물 등을 수출하며(1억불) 원유, 천연가스 등을 수입하고 있다(15억불).

2. 역사

6-7세기 무렵 말레이 부족국가가 형성되었으며 1405년에 브루나이 이슬람 왕국을 세웠다. 그 후 15세기~16세기 무렵 보르네오 섬 북반부 전체 및 필리핀 일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다가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의 침략을 받았다. 1847년 영국과의 우호조약 체결로 인해 소국으로 전락했으며, 1888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 1932년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1959년 자치정부 헌법을 제정했다. 1968년 제 29대 국왕 하사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즉위 후 1984년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으며 같은 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가입했다.

3. 문화적 특성

브루나이 사람들은 대부분 말레이 인으로 관습, 신앙, 역사 등이 말레이 반도에 사는 말레이 인들과 닮았다.

아닷Adat이라 부르는 관습법이 브루나이에서의 모든 전례를 주도하며 특히 왕실이나 국가 전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 조직에 아닷 이스티사닷Adat Istisadat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전례를 보존하고 절차나 의복, 문장 등에 관해 조언을 해준다. 브루나이는 독특한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인당 GDP가 31,239달러에 이르는 만큼 생활수준이 높고 자동차 보

유대수가 전체 인구인 40만 명과 비슷한 40만대이며, 가구당 평균 보유 대수가 5대에 이른다.

4. 축제

- **브루나이왕탄신일**Birthday of Sultan of Brunei

7월 15일은 현 브루나이 국왕 하지 하사날 볼키아Haji Hassa-nal Bolkiah의 탄신일로 브루나이 최고의 축제이다. 6월 15일부터 진행되며 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다양한 행사가 열리지만, 술을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흥청망청하는 유흥은 없다.

- **마울루드 나비 무함마드**Maulud Nabi Muhammad

3월~4월에 있는 이슬람 창시자 무하마드 탄신일이다. 전 세계 이슬람교도들에게 각별한 이 날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과 사원, 학교 등에서 약 한 달 동안 축하행사를 벌인다.

- **하리 라야 아이딜피트리**Hari Raya Aidilfitri

브루나이를 비롯한 이슬람 국가 최대의 축제이다. 금식하는 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는 날이자 이슬람 달력의 열 번째 달인 샤왈의 첫째 날이다. 평소에 공개하지 않던 왕궁을 사흘 동안 개방하고, 불꽃놀이를 비롯해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연다.

5. 음식

구운 생선에 매콤한 망고 소스를 곁들인 요리 암부얏Ambuyat과 나시르막Nasi Lemak, 비프 른당Beef Rendang 등이 현지 요리로 유명하다.

- **암부얏**Ambuyat

사고야자 나무줄기에서 추출한 녹말가루를 반죽한 음식으로, 길고 뽀죽한 대나무 포크에 찍어 새콤한 과일 소스와 함께 먹는다. 구운 생선과 젓갈 등이 곁들여진다. 브루나이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자 현지

인들이 가장 즐겨먹는 요리이기도 하다.

- **나시 르막**Nasi Lemak

말레이식 아침 식사로 흰 쌀밥에 칠리소스와 멸치 볶음, 삶은 달걀, 오이 등을 바나나 잎에 싸서 내는 일품요리이다. 브루나이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 **비프 른당**Beef Rendang

룬당은 코코넛 소스에 양파, 마늘, 고추 등을 넣어 맵게 볶은 요리로 인도네시아가 기원이다. 소고기뿐 아니라 닭, 오리 등 재료를 달리할 수 있으며 잭 푸르츠 같은 과일을 넣어 만들기도 한다.

6.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왕실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정부 고급관리를 기용할 때도 부미푸트라 정책말레이계 우대정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말레이계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국답게 사회 복지적인 면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내국인에게 모두 무상 의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노인 및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원한다. 또 빈민층과 미망인에게 재정지원을 해줄 뿐만 아니라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7. 교육

전체 무상교육이 원칙이다. 만 5세에 취학하여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5년 과정을 마치면 6th form centre 또는 간호 보조학교 직업 기술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대학에 가려면 대학 예비학교(2-3년)를 수료 후 GCE-A Level에 합격해야 한다.

8. 경제

아시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브

루나이 경제는 국내 총생산의 약 80%, 총수출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 가스 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배당금, 세금, 로열티, 임대료 등의 수입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극도의 석유 의존형 경제 체제이다.

1997년 이래 저유가 추세로 석유 수입이 격감하여 국고 손실이 컸지만 최근 유가 상승 및 아시아 경기 회복 추세에 따라 석유 수출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가비전 2035’라는 장기 국가 비전을 세워 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있으며, 사회 복지 및 생활환경이 나아지도록 애쓰고 있다.

연 70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의 수출로 매년 60억 달러씩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류, 자동차, 공산품, 식료품 등이며 주요 교역 대상국은 일본,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주요 지역



무아라MUARA 지역

브루나이 북동쪽 지역으로 수도인 반다르세리 베가완이 있다.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 제루동 파크 놀이공원, 세계 최대의 수상마을인 캄퐁 아예르 등 주변에 볼거리가 많다. 또한 코발트 빛 바다로 이름난 브루나이답게 아름다운 해변들이 여러 곳에 널리 펼쳐져 있다.



투통TUTONG 지역

브루나이에서 가장 큰 호수인 타섹 므림분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바닷가라는 뜻을 가진 스리 고낭안 해변이 있다. 투통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인 타무 투통 캄퐁 스라바와 송아이 바송 해양공원이 있는 곳이다.



벨라이트BELAIT 지역

브루나이 서쪽 지역으로 경제와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쿠알라 벨라이트 타운을 비롯하여 열대우림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송아이 리앙 휴양공원과 맑고 깨끗한 늪이 있는 루아간 랄락 휴양공원 등이 있다.



템부롱TEMBURONG 지역

바투 아포이 산림보호 지역에 있는 울루 템부롱 자연공원은 '아시아의 허파'라 부를 만큼 보르네오 섬의 자랑거리이다. 무려 5만 헥타르 정도로 크기가 넓으며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생태관광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예절 Tip!

- 다른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건드리는 것은, 브루나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 가운데 하나이다.
- 다른 사람에게 물건이나 음식을 건넬 때는 항상 오른손을 써야 한다.
- 슬리퍼 차림이나 소매가 없는 옷, 짧은 치마를 입고 사원이나 왕궁과 박물관에 입장할 수 없다.
- 이슬람교도인 브루나이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거나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의 경우 음주는 가정집이나 허가된 특정 장소(음식점의 폐쇄된 지정석 등)에서 즐길 수 있다. 모든 공공장소에서 음주는 금지되어 있다.

캄보디아

CAMBODIA

• CAMBODIA

쭈어 쓰데이?
“안녕하세요?”



앙코르와트의 나라



가운데 흰색 그림은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인 앙코르와트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찬란한 크메르 문화와 부를 나타낸다. 적색은 불의에 대한 투쟁과 강인한 캄보디아의 정신을, 청색은 캄보디아의 농업과 환경을 상징하고 있다.



국명 :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위치 :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부 (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접경)

면적 : 181,035km² (한국의 약 1.8배)

인구 : 14,289,000명 (2010년)

수도 : 프놈펜Phnom Penh

정부 형태 : 입헌군주제

국왕 :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정부 수반 : 훈센Hun Sen 총리

언어 : 크메르어, 불어(50대 이상), 영어(청·장년층)

주요 민족 : 크메르족 (90%), 소수민족(베트남, 중국, 참족, 고산족)

종교 : 불교 (95%), 기타 (5%)

화폐 단위 : 리엘Riel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앙코르와트Angkor Wat는 크메르 왕국의 찬란한 유적이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이 앙코르와트를 보기 위해 캄보디아를 찾는다.

9세기 초 앙코르 제국 성립 후 12세기에 들어서 오늘날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에 해당하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설립했다. 이러한 국력을 바탕으로 세운 건축물이 앙코르와트다.

2004년 이후 6년간 한국은 캄보디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1위를 차지할 만큼 양국 간의 관광 교류가 활발하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자신들

을 ‘크메르’ 혹은 ‘깜뿌찌어’로 부르기도 한다.

1. 우리나라와의 관계

한국과 캄보디아는 1970년에 수교했으나, 1975년 크메르 루즈 집권 이후 20여 년 동안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1996년 주 캄보디아 대표부 설치 및 1997년 주 캄보디아 대사관 개설을 거쳐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그 후 대 캄보디아 개발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외교, 국방, 경제, 통상,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제반 분야에 걸쳐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1999년 캄보디아가 ASEAN에 가입한 후 한-아세안 교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5년 12월 ASEAN+3 정상회의가 열린 후, 우리나라 시장개척단 및 투자 사절단이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캄보디아 구매사절단이 한국을 찾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연간 교역액은 약 3.8억불(2010년)에 달한다. 한국은 캄보디아에 중고차, 식물류, 섬유제품, 기계부품 등을 수출하고(3.3억불), 천연고무, 버섯류, 섬유제품, 알루미늄 등을 수입하고 있다(0.4억불).

2. 역사

캄보디아의 기원은 1~6세기 경 메콩 델타 지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후난 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후난 왕국은 동남아 최초의 대힌두 왕족이었으며, 후난이라는 뜻은 산스크리트어로 ‘산의 왕’이다.

후난 왕국은 현재 캄보디아, 남베트남, 태국의 짜오프라야 하류지역, 라오스 남부지역, 말레이 반도 북부 팽타니 지역을 석권했다.

메콩 강을 장악한 후난 왕국은 농경국가로 성장했고 메콩 강 수상교통의 중심이 되었다. 802년 자야바르만 2세가 앙코르 왕조를 열어 1431년 샴(현 태국)의 침략으로 쇠퇴할 때까지 현재 캄보디아 영토 뿐 아니라 베트남, 라오스, 태국까지 지배하며 크메르 민족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1431년 삼의 침략 후, 19세기 중반에 프랑스 식민지가 되기까지 삼과 베트남의 지배를 번갈아 받으며 왕국의 명맥만 유지했다.

1945년 일본의 후원을 받아 시하누크 왕이 독립을 선언했고 1953년에 완전히 독립했다. 그리고 1975년 4월 폴포트가 이끄는 캄푸치아 공산당(크메르루즈)이 프놈펜에 입성하여 급진 혁명을 추진했다. 특히 크메르 루즈의 4년 통치기간 동안 대학살이 자행되어 약 이백여 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캄보디아의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었다.

1991년 유엔 보호 아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으며 1993년 유엔 감독 아래 과도정부가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시하누크가 군주의 지위에 복귀하게 되었고, 2004년에 아들인 시하모니 국왕에게 양위하였다. 현재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상징적 존재로 남아있다.

3. 문화적 특성

국교는 불교이며 국민 대다수가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영위하고 있다. 불교 사원은 예배, 교육 및 사회활동의 장소이고, 승려는 사회에서 존경 받는 계층이다. 캄보디아에서 불교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국가의 기반을 이루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캄보디아인들은 앙코르 유적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캄보디아 국기에도 앙코르와트 문양이 새겨져 있다.

전통춤으로는 앙코르와트에 새겨진 ‘압사라 춤’이 있는데, 이는 시바신과 비슈누신을 위해 춘 춤이라고 한다. ‘압사라 춤’은 오늘날 캄보디아 문화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왕실 무용으로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즐겨 추는 춤이 되었다.

4. 축제

• 찌울찐남 Chaul Chnam

매년 4월 중순에 개최되며 크메르의 신년을 기념하여 사흘 동안 계속

된다. 이 때 크메르인들은 절에 공양을 하고 집을 청소하며 새 옷을 선물로 주고받는다.

- **쯔롯 브레아 넝꼴** Chhrot Preah Nengkorl

매년 5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왕실에 의해 개최되는 농경제로 왕실에서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5. 음식

- **꾸이띠유** Kuy Teav

캄보디아 인들이 즐기는 쌀국수이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등으로 만든 육수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다.

- **쑤꼬** Soup Kor

캄보디아식 소고기국으로 비계와 내장에 야채를 듬뿍 넣어 끓인 국이며 쌀밥과 함께 먹는다.

6. 사회

1970년 이후 약 30년 동안 캄보디아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크메르 공화국, 민주 캄푸치아,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캄보디아국, 캄보디아 왕국 등 국호도 여러 번 바뀌었다.

십 년 간의 내전을 종식하고 1993년 첫 의회선거가 있은 후 매 5년마다 전국적인 의회선거가 실시되어 현재 제 4대 국회와 정부가 구성되어 있다. 정부 형태는 총리를 수반으로 하며 현재 캄보디아의 집권당인 캄보디아 국민당의 훈센이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7. 교육

교육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크메르 루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1979년 크메르 루즈의 붕괴 이후 다시 재건되고 있다.

교육제도는 1996년 이전에는 10학년제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

년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나, 1996년부터 우리와 같이 12학년제로 바뀌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다.

헌법에서는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와 교사가 부족해 오전 오후로 2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유일한 종합대학인 프놈펜왕립대학에는 2008년 한국학과가 개설되었다.

8. 경제

적극적인 외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 발전 및 정국 안정에 힘입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1%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2004년 34.7%였던 빈곤지수 유엔이 정한 Human Poverty Index : 1일 1달러로 사는 인구 비율가 2007년에는 30.1%로 매년 빈곤지수가 1%씩 감소하고 있다.

2008년 9월에 구성된 제 4기 정부(2008-2013)는 농업, 물 및 관개 시스템, 운수 인프라, 전력, 인재 육성, 노동 집약형 및 수출 주도형 산업, 관광, 천연자원개발, 정보통신, 무역 등 10개 분야를 우선 산업으로 정해 경제발전을 추진 중이다.

캄보디아의 연간 교역 규모는 약 100억불이며 기본 소비재와 유류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외국인 진출 기업에서 생산하는 의류와 천연고무, 농산물, 수산물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및 석유제품, 직물, 섬유사,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전기기기, 담배, 의약품, 철강제품 등이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EU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홍콩, 대만,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이다. 주요 교역 대상국은 일본,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주요 지역



프놈펜 Phnom Penh

캄보디아 수도이며 메콩 강과 톤레삽 호수, 바삭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무역의 중심지다. 전통양식으로 지어진 왕궁과 킬링필드의 아픔을 재현한 뚜어 슬랭(Toul Sleng) 박물관 등이 있다.



시엠립 Siem Reap

캄보디아의 북서쪽 지역으로 유명한 앙코르 유적지가 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앙코르와트 이외에도 주변의 광활한 평원에 1000개 이상의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앙코르 유적군은 건축물의 완벽한 조화와 균형미, 벽에 부조된 섬세한 조각들로 세계 최고의 예술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톤레삽 호수 Tonle Sap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로 1997년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바닷물의 총적 작용으로 주변 땅이 육지화 되었고 그 중 일부가 남아 호수가 되었다. 톤레삽 호수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위에 집을 짓고 사는 수상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시하눅 빌 Sihanouk Ville

캄보디아 남서쪽에 있는 항구도시로 거의 모든 해외 수출입이 시하눅 빌의 항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개발이 많이 되지 않은 캄보디아의 아름다운 해변을 볼 수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다.

인도네시아

INDONESIA

아미하 가미하?
“안녕하세요?”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나라



용기를 상징하는 위쪽의 붉은 색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아랫쪽의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1945년 8월 독립을 선포할 때 인도네시아 국기로 정식 채택되었다.



국명 : 인도네시아 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위치 : 동남아시아 남단 인도양 서쪽과 동태평양 사이 적도 부근

면적 : 1,860,360 km² (한반도의 약 9배)

인구 : 234,377,000명 (2010년)

수도 : 자카르타 Jakarta

정부 형태 : 대통령 중심제

국가 원수 :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언어 : 인도네시아어 Bahasa Indonesia

주요 민족 : 자바족, 수다족, 아체족, 바탐족, 발리족 등

종교 : 이슬람교(87%), 개신교(6%), 가톨릭, 힌두교, 불교

화폐 단위 : 루피아 Rupiah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약 2억 3천 4백만 명(2010년 기준)으로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며, 가장 섬이 많은 국가이다. 공식적으로 17,508개라고 하지만 인공위성으로 확인된 섬만 18,108개며 그 중 무인도는 12,000개이다.

대표적인 섬은 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이슬람교도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이다. 건국 이념에 따라 이질성, 복합성, 다양성을 바탕으로 이슬람뿐만이 아니라 이슬람이 도래하기 전부터 번성했던 힌두·불교 문화 등 다양한

요소로부터 일치된 부분을 이끌어내어 전통문화 속에 현대문화를 창조하며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수도이자 비즈니스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카르타에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사무국)이 있다.

1.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를 자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경제, 통상 관계 강화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UN, APEC, ASEAN, ASEM, 비동맹 등 모든 국제기구에서 협조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경제 협력 강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관심 증대로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10대 수출 대상국이며, 포스코, 현대자동차, SK 텔레콤 등, 우리 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많은 나라이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산림, 대체 에너지 개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반자로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연간 교역액은 229억불(2010년)에 달한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철강판, 금속제품, 전자전기제품 등을 수출하고(89억불),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등을 수입하고 있다(140억불).

2. 역사

기원전 약 1세기경에 도래한 힌두 문화와 약 13세기경에 전파된 이슬람 문화는 자바, 수마트라, 말레이 반도를 잇는 말레이 문화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보로부두르 불교 사원(샤이렌드라 왕조 8C 중엽~10C 초)과 프람바난 힌두사원(마타람 왕국, 752~1045년)과 같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탄생시킨 고대왕국 시대를 거쳐, 350년 동안 네덜란드 식민통치를 받았으며 이어 3년 6개월 동안의 일본 점령기(1942~1945년)를 지나 1945년 8월 17일 독립했다.

독립 후 수카르노Soekarno대통령이 집권했으며 1965년 9월 30일 공산당 쿠데타로 정권이 이양되어 1967년~1998년 수하르토Soeharto대통령 시대가 이어졌다. 1997년 IMF 위기로 수하르토 대통령이 물러나고 민주화의 물결 속에 부통령이었던 히비비가 잔여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1999년 압두라흐만 와히드Abdurrahman Wahid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 후, 부통령이었던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Magawati Soekarnoputri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집권하다가 2004년 최초로 대통령 직선을 통해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oyono대통령이 선출되었고, 2009년 재선되어 현재에 이른다.

3. 문화적 특성

인도네시아 580여 종족은 저마다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문화적인 특징은 말레이 민족 문화를 기반으로 인도, 중국, 이슬람, 유럽 등 각종 외래 요소가 가미되어 다양성을 띄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다양성 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가치 기준은 ‘신’, ‘타인’, ‘자연’이다. 신에게는 예배와 감사와 보은을, 타인에게는 상부상조와 협동을 중시해 건축물이나 직물 문양, 전통가구 등에 표현하고 있다.

타인을 배려하다 보니, 실제로 마음은 ‘No’인데도 ‘No’라는 말을 하지 않아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배려를 중시하며 자연물에 음식을 주는 의식을 행한다.

대표적인 문화로 고대 페르시아나 이집트에서 도입되어 인도를 거쳐 자바에서 꽃피우게 된 무명 염색 예술인 바틱Batik과 고전 예술 공연 와양Wayang이 있다.

와양Wayang은 그림자 극에 쓰이는 인형, 혹은 그림자 극을 뜻한다. 국민의 약 87%가 이슬람교를 믿으며 이슬람교가 사회생활과 문화 저변에 자리잡고 있다.

4. 축제

• 요그야카르타Yogyakarta, 옛 명칭 족자카르타 예술 축제

매년 6월 7일~7월 7일 한 달간 진행되는 요그야카르타 전통적 예술과 문화를 보여주는 행사이다. 퍼레이드와 전통 공연, 예술 작품, 관련 상품, 즐길 거리 등을 소개한다.

• 갈룽안Galungan

발리에서 벌어지는 갈룽안은 악마의 우두머리가 죽은 것을 기념하고 신의 은총에 감사하는 축제이다. 조상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의미로 대나무로 만든 뽀조르Penjor라는 장식을 문 앞에 세운다.

5. 음식

• 삼발Sambal

삼발 소스가 빠진 인도네시아 식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인도네시아 요리에 삼발을 곁들여 먹는다. 삼발의 주재료는 고추, 마늘, 양파, 소금이며 매운 맛이 난다.

• 나시고렝Nasigoreng

나시고렝볶음밥과 미고렝볶음면은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음식이며 일반적인 음식이다. 까끼-리마포장마차에서는 물론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다 맛볼 수 있다. 신선한 야채와 대하를 넣거나 샐러트보라빛이 도는 양파과 칠리를 넣어 만든다.

• 가도가도Gado-gado

데치거나 삶은 야채로 만든 샐러드이다. 숙주, 시금치, 당근, 푸른 콩, 껍질 콩 등이 주요 재료이다.

6. 사회

고온다습한 열대성 몬순 기후라 식생활 자원이 풍부하다. 오랜 기간 네덜란드 식민지 생활을 한터라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광활한 영토에

산재한 다민족, 각종 지방 언어, 이슬람 종교가 복합되어 사회적 관습이 다양하다.

가족관계는 지방으로 갈수록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특징을 보여준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슬람의 영향으로 실생활 속에서는 결혼과 이혼이 비교적 자유롭다. 다른 이슬람 국가와 달리 여성의 사회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의 위치가 남성과 동등하며 사회 진출도 활발한 편이다. 이슬람 고유의 전통에 따라 예의범절이 엄격해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에 존댓말을 구분해 사용한다.

7. 교육

우리나라와 같이 6-3-3-4년제의 학제를 시행하고 있다. 1994년부터 9학년(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51개의 국립대학과 1262개의 사립대학이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교육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대도시 중심으로 사립대학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카르타에 있는 국립대학교인 인도네시아대학교에 2006년 8월, 4년제 학위 과정의 한국학과가 개설되었으며 요그야카르타 소재 국립대학교인 가자마다 대학교에도 한국학과가 개설되었다.

8. 경제

2010년 유도요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 금융, 산업, 고용 구조조정 및 규제 완화, 투자 유치, 환경 개선 등 경제개혁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4.5~6.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G20 국가에 포함되어 동남아 지역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의 보고인 인도네시아는 원유, 주석, 니켈, 천연가스, 석탄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서 원유와 천연가스가 총 수출의 약

70%를 차지한다. 또한 열대작물과 임산물의 세계적인 공급국으로 고무와 커피는 각각 세계 2위, 3위 생산국이다.

대일 편중적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국, 대만, 미국, 유럽 등과 무역, 투자 등 대외 거래 분야에서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주요 지역



자카르타Jakarta

급속히 발전하는 현대 도시의 위용을 자랑할만 한 곳으로 세계 각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국제도시이자 비즈니스 중심지이다. 동남아시아 최대 이슬람 사원인 이스티클랄 사원과 한때 리틀 암스테르담이라 불렀던 중국 상인들의 중심지인 코타가 유명하다.



발리Bali

‘신들의 섬’ 또는 ‘신들이 사랑한 섬’이라 부르는 발리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관광지이다. 자바 섬 동쪽에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독특한 발리 힌두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요그야카르타Yogyakarta

자바 섬 중부에 있는 특별자치주인 요그야카르타는 자바 문화의 중심지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보로부두르 불교 사원’과 ‘프람바난 힌두사원’이 있으며 ‘가자마다 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있다.



롬복Lombok

발리와 가깝지만 발리와 전혀 다른 분위기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때 묻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 잘 보존된 문화유산 등 롬복이 갖고 있는 매력이 무궁무진하다.

라오스

• LAO PD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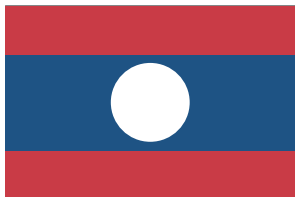
LAO PDR

서바이버?
“안녕하세요?”

LAO PDR



전통의 원형을 간직한 아름다운 미소의 나라



라오스의 국기는 라오스인이 국토를 지키기 위해 흘린 피와 용기를 뜻하며 중앙의 흰색 원은 메콩강에 떠오른 보름달로 라오스인의 순수한 마음과 건강을 상징하고 있다.



국명 : 라오 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o PDR

위치 :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있는 내륙 국가

면적 : 236,800km² (한반도의 약 1.1배)

인구 : 6,443,000명 (2010년)

수도 : 비엔티안/Vientiane

정부 형태 : 1당제 (라오인민혁명당)국가

국가 원수 : 촘말리 사야손Choummaly Sayasone 대통령

언어 : 라오스어

주요 민족 : 49개 종족, 라오름, 라오통, 라오송 등

종교 : 불교 (67%), 기독교 (1.5%), 기타 종교 (31.5%)

화폐 단위 : 킵/Kip/KN

라오스는 서쪽 국경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흐르는 메콩 강을 젖줄로 삼고 있으며 지형, 생활 풍습, 역사 등 여러 면에서 한국과 닮은 점이 많다. 특히 책상다리로 앉아 식사를 하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며, 쌀에 찹쌀을 즐겨 먹는 전통이 있다.

13세기 북부 루앙프라방을 중심으로 '란상 왕국'이 번영을 누렸던 라오스는 근대 이후, 프랑스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그 후 대내적으로는 왕당파와 국민파 간의 정치적 대립을 겪었으며, 대외적으로 인도차이나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했다.

1975년 ‘라오 인민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라오스는 49개 소수민족들을 하나로 아우르면서 발전하고 있다.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서쪽의 ‘방콕’, 남쪽의 ‘앙코르와트’, 북쪽의 ‘쿤밍’, 동쪽의 ‘호치민 시티’를 연결하는 교통 물류의 중심 ‘from land-locked to land-linked’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1991년~2009년 총 3,953만 불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2003년 라오스 한글학교가 문을 열었으며 문화, 체육 분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문화공연단은 호응을 많이 얻고 있어 한류 확산과 한국 이미지 제고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다.

라오스를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2009년 기준 17,876명으로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라오스의 연간 교역액은 약 1.3억불(2010년 기준)에 달한다. 한국은 라오스에 자동차, 의류, 자동차부품 등을 수출하고(1.1억불) 목재, 기호식품, 의류 등을 수입하고 있다(0.2억불).

2. 역사

오랫동안 타이-까다이 계통의 샨, 시암, 라오족을 비롯해 많은 부족들이 이주해 살던 곳이다. 첫 번째 라오스 연합체인 므앙Meuang은 몽고 황제 쿠빌라이칸이 남서 중국을 침입한 직후인 13세기에 통일되었다.

란상 왕국은 14세기 중반 크메르 왕국의 원조를 받은 라오스 장군인 파응웸FaNgum이 세운 나라이다. 왕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큰 왕국 중의 하나였으며 지금도 라오스 영광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이 왕국은 14~15세기에 번영을 누리다가 17세기에 세 개의 왕국으로 분리되었으며, 18세기 말에 대부분의 라오스 지역은 태국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고 19세기에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53년 협정을 통

해 완전 독립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왕권주의자, 중도파, 공산주의자 간의 투쟁이 계속되었다. 1975년 12월 마침내 라오 인민민주공화국이 탄생했으며 1997년 7월 ASEAN에 가입했다.

3. 문화적 특성

일상생활 속에 깃든 문화를 보면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나 이웃, 친척 간의 깊은 연대감 등이 한국인과 닮았다. 이웃에 잔치가 벌어지면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상부상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라오스 북쪽지방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물레방아나 디딜방아를 아직 사용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평화롭고 넉넉한 라오스인들의 미소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4. 축제

- **분방화이**Bun Bang Fai

매년 5월에 열린다. 기우제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라오스에서 가장 활기 있는 축제다. 음악과 춤을 곁들인 행진과 술을 마시는 잔치가 벌어지며 하늘에 대나무 로켓을 쏘는 것으로 축제를 끝낸다.

- **옥 판사**Ok Phansa 대회

비엔티안과 사완나켓, 참파삭을 중심으로 3개월간의 안거를 끝낸 승려에게 시주하고 공덕을 쌓는 축제이다. 매년 10월 14일에 열린다. 각 지역마다 메콩 강에서 보트 레이스 대회를 연다.

- **분**bun : 라오스어로 '축제'를 의미 **탓 루앙**Bun That Luang

라오스의 최대 불교 사원인 탓루앙에서 매년 11월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는 제일 큰 축제다. 화려한 촛불을 들고 승려들과 라오스인들이 행렬을 하며 부처의 자비를 전하고 건강을 기원한다.

5. 음식

- 카오 니아우 Khao Niao

증기에 찐 찹쌀밥을 대나무로 만든 원통형 용기에 담아 맨손으로 식사한다.

- 랍 Raap

다진 고기에 각종 향채와 야채, 볶은 쌀가루 등을 섞은 샐러드로 밥과 함께 먹는다. 행운을 뜻하는 라오스어와 발음이 같아 ‘귀한 손님에게 행운을 드린다’는 의미로 대접한다.

- 퍼 Poe

소뿔로 우려낸 국물에 각종 허브 야채 등을 넣어 먹는 쌀국수로 현지인들은 고춧가루, 고추기름, 핫 소스 등을 넣어 맵게 먹는다.

6. 사회

사교방식 속에 불교 사상이 깊이 내재되어 있고,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찰은 전통적으로 촌락 생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승려의 여전히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계층 중의 하나이다.

예전에는 소승불교가 국교로 보호되었으나, 현 인민민주공화국 정권 아래 국교는 없다. 1970년대 이후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한 후 불교가 탄압을 많이 받았으나, 오늘날에는 사회주의 정권과 불교가 공생관계로 자리를 잡았다.

악수를 하지 않고 불교식으로 두 손을 합장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합장한 손 끝이 높이 올라갈수록 존경과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인데 대개 손끝을 코 끝 정도 높인다. 거주하는 민족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농업사회적 특성이 촌락공동체를 통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7. 교육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교육 6년(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4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지만, 실제 취학률은

전국 평균 71%에 불과하다. 초등학교는 부락 단위, 중학교는 촌 단위, 고등학교는 구 단위에 있으며 그 외에 직업학교, 교원양성학교, 소수민족을 위한 학교 등이 있다. 성인 문자 해독율은 전국 평균 73%이다.

우리 정부는 ‘루앙프라방 국립대 건립 사업’을 지원했으며, 루앙프라방 국립대는 2005년에 착공, 2008년에 개교했다.

8. 경제

라오스는 세계 최빈 개발도상국이라는 타이틀을 벗기 위해 ‘국가사회경제개발5개년계획’ 이행에 힘쓰고 있으며 2006년~2010년 연평균 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경제 성장은 라오스 보유 천연자원을 이용한 대규모 해외 직접투자(수력발전, 광업) 및 원조 공여에 힘입은 바 크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각 분야의 역량 강화와 투명성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2001년을 기점으로 10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라오스에 수출하는 물품은 자동차, 기계류, 철강 제품, 전기기기이며 주요 수입품은 동 및 동 제품, 목재류, 기호식품 등이다. 관계 개선을 통해 서방세계의 자본을 유치하고 국내 산업을 개발 촉진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지역



비엔티안 Vientiane

메콩강 기슭에 있는 라오스 수도로 작지만 (인구 70만)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다. 중부지방의 하향으로 수상교통이 발달했고 주변지역에서 쌀을 집약적으로 재배하고 있어서 라오스의 중요한 경제 중심지가 되었다.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루앙프라방은 1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라오스 제 2의 도시이다. 라오스 최초의 통일왕국 란상의 수도로 지정된 후 1563년 수도를 비엔티안으로 옮길 때까지 800여 년 간 라오스의 문화, 종교, 정치의 중심지였다.



방비엔Vang Vieng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이다. 산과 마을을 지나며 흐르는 깨끗하고 맑은 송강과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튜빙, 카약킹, 동굴 트래킹 등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해준다. 배낭여행자들의 3대 블랙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팍세Pakse

식민지배 시절 프랑스가 라오스 남부를 통치하기 위해 만든 도시로 라오스 남부의 경제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지이다. 라오스 남부는 오랜 기간 여행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앙코르 유적으로 유명한 왓 푸, 4천여 개의 섬이 모인 씨판돈 등 남부지역 고유의 색깔을 간직한 명소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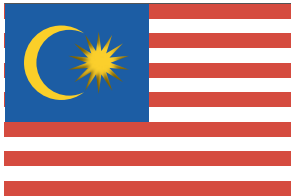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MALAYSIA

아니야 까바르?
“안녕하세요?”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



적색과 백색으로 된 14개 횡선은 연방정부와 13개 주가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좌측 상단의 감색은 단결을, 초승달은 이슬람교를, 섬광을 발산하는 14개 별은 13개 정부와 연방 정부로 구성된 말레이시아 연방을, 별과 초승달의 황색은 국왕에 대한 충성을 각각 상징한다.



국명 : 말레이시아Malaysia
위치 : 동남아시아 적도 북단
면적 : 330,252km² (한반도의 약 1.5배)
인구 : 28,251,000명 (2010년)
수도 :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정부 형태 : 의원내각제
국왕 : 압둘 할림Abdul Halim 국왕
언어 : 말레이어(바하사 말레이시아어가 공용), 영어 통용
주요 민족 : 말레이계 (58%), 중국계 (25%), 인도계 (7%), 기타(10%)
종교 : 이슬람교 (국교), 불교, 힌두교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
화폐 단위 : 링깃Ringgit/RM

말레이시아 국토는 말레이시아 반도와 보르네오섬 북부(동 말레이시아)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도는 쿠알라룸푸르다.

역사적으로 5~6세기에 걸쳐 유입된 힌두교와 불교문화가 북서부 지역에 전파되었고, 14세기 무렵 아랍 상인에 의해 전해진 이슬람교는 말레이시아에서 대표적인 종교가 되었다.

말레이시아는 13세기 후부터 20세기 초까지 서양 식민 열강의 지배를 받다가 1957년 8월 31일 말라야 연방으로 독립했다. ‘비전 2020’Vision 2020, Wawasan 2020정책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선진국

으로 비상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우리나라와의 관계

1960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정치·경제·문화면에서 양국 관계는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한국과 일본을 발전 모델로 삼고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교·안보·무역·투자 및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두 나라 사이의 쌍방향 투자 외에 에너지, IT, 관광, 금융 등으로 경제 협력 분야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연간 교역액은 156억불(2010년)에 달한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에 반도체, 컴퓨터, 철강관 등을 수출하며(61억불) 천연가스, 반도체, 석유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95억불).

2. 역사

말레이시아는 말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13세기까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그러나 식민 열강들이 국제적인 교역항이었던 말라카 Malacca, Melaka를 침입하면서 외세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16세기에 포르투갈이 침공한 후 네덜란드가 말라카를 점령했고, 18세기에 영국이 페낭Penang을 점령하면서 20세기 초까지 외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바다 건너 보르네오 섬에 있는 사라왁Sarawak 주는 1841년 이후 영국 모험가인 제임스 브룩James Brooke과 그의 후손들이 통치를 했다.

1888년에 사라왁 주와 북보르네오[훗날 사바Sabah로 개칭]는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 그 후 말레이시아는 1957년 8월 31일 말라야 연방으로 독립을 했다.

그리고 1963년에 동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1965년 분리, 독립)를 포

함한 현재의 말레이시아 연방을 성립하게 되었다.

3. 문화적 특성

약 2천 8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결집하여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함께 살아간다. 이슬람과 중국, 인도, 서구의 가치가 공존하며 다양한 종교와 의례들이 혼합되어 있다.

여러 종류의 복장, 관습, 노래, 춤 등의 전통문화는 문화 간 교류의 통로 구실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여러 민족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연극, 무용, 음악 대중문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무슬림 국가여서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을 가장 중요시 한다.

4. 축제

- **디파발리**Dipavali

디파발리는 힌두교인들의 빛의 축제이다. 타밀Tamil 달력의 첫째 달에 해당하는 10월 혹은 11월 중에 즐기는 대규모 신년 축제다.

축제가 시작되면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다채로운 전통의상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제를 만끽한다. 힌두사원에서는 돈을 주고 산 가짜 종이 돈을 태우며 한 해의 복을 기원하고 그릇을 깨며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

- **하리 라야 아이딜 피트리**Hari Raya Aidilfitri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면 축제를 통해 계명을 지킨 것을 자축한다. 이슬람 최대의 명절로 말레이계가 대부분 이슬람을 믿고 있으므로 국가의 기념일이나 명절도 이슬람 전통에 따른다.

- **타이푸삼**Thaipusam

매년 1월에 열리는 힌두교 속죄와 참회의 고행일로 무가 신과 수브라마니암 신의 영광을 기리는 날이다.

5. 음식

• 나시Nasi

말레이시아의 주식인 쌀은 부슬부슬한 ‘인디카’ 종이다. 이것을 전기 밥솥이나 그릇에 담고 끓는 도중에 물을 버리거나 휘저으면서 끓이면 말레이시아의 쌀밥인 나시가 된다. 기본 식사로 ‘삼발’Sambal이라는 양념과 함께 먹는다.

• 노냐Nonnya

중국과 말레이 음식의 현지 변종으로 중국 조미료와 고추나 코코넛 밀크 같은 현지 향료를 함께 넣어 요리한다. 가정에서 많이 만들어 먹는다.

• 중국계 음식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쉽게 먹을 수 있다. 동부의 중국식 음식은 주로 쌀과 야채를 섞어 요리하거나 해산물을 볶거나 튀긴 것이 대부분이다.

• 인도계 음식

남인도 음식은 야채를 주로 많이 쓰며 매운 편이고, 북인도 모굴요리는 값이 비싼 편이다. 인도계 요리 중 탄두리Tanduri도 즐겨 먹는다. 탄두리는 흙으로 만든 화덕을 찡하는 것으로 계속 숯불에 달구어져 있다. 이 화덕에 양이나, 닭, 돼지고기를 바비큐 스타일로 굽는 것을 탄두리 음식이라고 한다.

6. 사회

1971년 이후 <부미푸트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말레이인 우대 정책의 총칭으로 인종 간, 부의 편중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다. 빈곤 세대가 많은 농촌 말레이 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경제 기회를 갖게 해주어 중국계가 지배적인 경제를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7. 교육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5년(초급 3년, 상급 2년), 대입 준비과정 2

년, 대학교 3~4년의 학제이다. 초등학교 6년 및 중학교 초급 과정 3년은 무상교육이다.

인구에 비해 대학 수가 적고 부미푸트라 정책에 의해 인종별로 쿼터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계는 대학에 입학하기 어렵다.

교육은 민족에 따라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로 하지만 공용어는 말레이어다. 국립말라야대학교에 한국학 전공과정인 개설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국립대학교, 국립푸트라대학교, 말레이시아과학대, 마라공대 등에 한국어가 교양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8. 경제

말레이시아 정부는 ‘비전 2020’이라는 장기 발전 전략과 5년 단위의 중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부터는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으로 머무는데 그치지 않고 동남아시아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2년부터 ‘동방정책’의 기치 아래 전기·전자를 비롯한 제조업 육성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전기·전자 등 제조업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전기·전자 제품은 말레이시아 최대 수출 상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수출액의 약 45%).

최근에는 지식산업인 IT산업, BT산업과 함께 금융과 관광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ASEAN 경제공동체 결성, 동아시아 경제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투자 교역국과의 FTA 체결에도 적극적이어서 한국, 일본, 중국과 FTA를 체결했다.

또한 무슬림 국가와 비동맹국가 등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슬람금융권과 중동, 아랍 지역 건설시장 진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자원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주요 수출품은 전기·전자 제품, 종려나무 기름, 원유, LNG, 화학 및 화학제품, 기계류, 금속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중간재와 소비재, 자본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요 지역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말레이시아 연방의 수도이며 무역, 상업, 금융, 교통, 정보, 산업, 관광의 중심도시이다. 도시 중심부에 있는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는 한국과 일본이 한 쪽씩 맡아 완공한 건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랑카위Langkawi

9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군도이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비행기로 50분 거리에 있으며 석회암 시대 동굴, 우뚝 선 바위들, 빙하기의 종유석 등 볼거리가 풍부해 2007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페낭Penang

1786년 영국의 무역 거점이 된 후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동양의 진주', '인도양의 에메랄드'라 부른다. 인도양 위에서 보면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고 다채로운 볼거리가 많다.



말라카Malacca, Melaka

말레이반도 남서부에 있으며, 말라카 해협은 해상교통의 요충지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의 하나이다. 세인트폴 언덕의 유적을 비롯하여 에이파모사, 스타더이스가 볼 만하며 박물관도 있다.



미얀마

MYANMAR

• MYANMAR

밍글라바?
“안녕하세요?”

MYANMAR

불탑의 나라



2008년에 제정된 새로운 헌법에 의해 2010년 10월부터 미얀마 국기는 결속, 평화, 용기를 각각 상징하는 노랑, 녹색, 빨강 삼색 바탕 위에, 연방의 의미를 강조하는 큰 별 하나가 중앙에 들어가는 문양으로 변경되었다.



국명 : 미얀마연방공화국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위치 :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

면적 : 676,577km² (한반도의 약 3배)

인구 : 61,187,000명 (2010년)

수도 : 내피도 Nay Pyi Taw

정부 형태 : 과도군사정부

국가 원수 : 떼인 세인 Thein Sein 대통령

언어 : 미얀마어(공용어), 영어통용

주요 민족 : 버마족 (70%), 소수족 (25%; 카친, 카렌족 등), 기타 (5%; 중국, 인도 등)

종교 : 불교 (89.5%), 기독교 (5%), 이슬람교 (4%) 외

화폐 단위 : 샣 Kyat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에 자리를 잡고 있는 미얀마는 한반도의 약 3배가 넘는 광활한 영토에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또한 야생의 산림, 아름다운 해변과 2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고대 도시 유적과 더불어 135개가 넘는 다양한 민족의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고 수많은 파고다와 불상을 통해 불교 문화를 꽃피운 나라이다.

전 인구의 90%가 불교신자여서 수준 높은 불교 문화를 자랑하고 있다. 매년 많은 불교 신자들과 관광객들이 불교 유적지를 찾고 있다. 아

시아 국가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우탄트)을 배출한 나라이기도 하다.

1. 우리나라와의 관계

한국은 미얀마와 1975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사관을 설치했다. 1988년 9월 미얀마 군사정부는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 증진을 희망하여 친북한 노선을 버리고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1989년 3월 주한 상주대사관을 설립했다.

1989년 10월, 제44차 UN 총회에서 미얀마 대표가 최초로 우리 입장을 지지하며 친한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가 지지하는 국제기구 입후보를 함께 지지하는 입장이다.

1988년 이래 문화 및 예술 교류뿐만 아니라 태권도, 축구 등 체육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가 높아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지니고 있다.

한국과 미얀마의 연간 교역액은 6.4억불(2010년)에 달하며, 한국은 미얀마에 철강제품, 산업기계, 직물, 석유화학 제품 등을 수출하고(4.8억불), 광물성 원료, 섬유제품, 농산물 등을 수입하고 있다(1.6억불).

2. 역사

약 1만 년 전, 티베트-미얀마어계 민족이 에야워디 강 상류에 처음 정착했고 1044년 버마족 바간 왕조의 어노여타가 왕위에 올라 현재 미얀마 지역을 망라하는 통일 왕조국가를 최초로 건설했다.

1287년 몽골족의 침략을 받아 바간 왕조가 멸망하고 혼란 상태에 빠졌으나, 16세기 따웅우 왕조가 재통일했다. 그러나 남부 몬족을 비롯하여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과 치열한 세력 확장을 위한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미얀마 북부의 영주였던 얼라웅퍼야를 중심으로 1759년 전 국토를 회복함으로써 버마족 중심 왕국 쯔바웅 왕조를 건설했다.

쯔바웅 왕조는 지금의 미얀마 영토를 규합하는데 성공했으나, 1885년

영국과 세 차례 식민지전쟁에서 패망하여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8년에 의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미얀마연방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하였다.

1962년부터 군사정부가 집권을 한 후, 2008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2010년 11월 7일 새로운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반세기만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민간정부가 들어섰다.

3. 문화적 특성

남인도 상인들이 오랫동안 미얀마 남부지역의 항구를 중심으로 한 교역을 벌여 종교, 문학, 건축, 공예, 연극 등에서 인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특이하게도 불교 문화의 영향력은 컸으나 힌두교 문화의 영향은 미미한 편이다. 중국 문화권과도 접촉이 있었지만 그 영향력 또한 크지 않다.

많은 소수민족들이 공존하고 있어서 독특한 문화를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으며 미얀마의 공예와 공연 예술은 농경생활의 절기, 상좌불교, 정령숭배인 나트Nat 신앙 축제, 왕가의 의례 속에서 육성되어 왔다.

불경의 스토리를 전통 연극으로 공연하는 ‘자트뽀웨’, 전통 인형극 ‘웃페뽀웨’, 전통 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사잉와잉’이 유명하며, 타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통 하프인 ‘사웅가웁’이 현존하고 있다.

4. 축제

• 꺼송Kason

5월에 열린다. 석가의 탄생, 득도, 열반 등 석가의 주요 삼대사가 5월 중에 있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로 여성들은 신성시되고 있는 보리수에 물동이를 이고 가서 뿌려주는 풍습이 있다.

• 더장 또는 띠장Thingyan

4월 중순에 시작되는 신년을 기념하는 미얀마 최대의 물 축제이다. 지난해의 악운을 씻어내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로 불상의

얼굴을 향해 나는 물로 씻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운을 기원하는 뜻으로 물을 뿌린다. 축제는 대개로 2주간 계속된다.

- **싱뷰**Shinbyu

미얀마 풍습에 따라 모든 소년들은 12살이 되기 전에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며칠 또는 몇 주간씩 수도원에서 수련을 쌓는다. 여성은 상좌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승려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싱뷰 의식 대신 귀에 귀걸이 구멍을 내는 천공의식을 가지기도 한다.

5. 음식

- **오누쿠하우크스웨**Ohnnukhaukswe

미얀마를 대표하는 전통음식 중의 하나로 결혼식이나 잔치 때 코코넛야자의 즙에 닭고기를 넣어 끓인 스투에 쌀국수를 비벼 먹는다.

- **모헝가**Mohinga

메기를 푹 삶아 끓여 만든 걸쭉한 스프에 쌀국수를 말아 먹는다. 미얀마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 **응어빠**Ngapi

한국의 젓갈과 비슷한데, 다른 동남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물생선으로 만든다. 응어빠는 미얀마 음식의 기본적인 향신료이다.

6. 사회

가족 간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중시하며 여성의 지위는 남성과 거의 동등하다. 연장자에 대한 공경심을 갖고 있으며, 단순하고 소박한 의상을 입는다. 불교와 자연 환경적 요인으로 모든 생활에 여유가 있다.

지나친 물욕을 탐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대체로 공정한 상행위를 한다. 재산을 축적하여 개인적인 것에 사용하기 보다는 내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공덕을 쌓는 일, 특히 파고다를 건축하는 종교적 행위에 중점을 둔다.

불교의 영향으로 쇠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많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즐겨먹는 편이다. 더운 날씨 탓에 음식이 상할 수도 있어 거의 모든 음식을 튀기며, 날 것으로 먹는 것을 대체로 피한다.

7. 교육

교육제도는 유치원 1년(만 5세), 초등학교 4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대학교 3(4)년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교육과정의 학비가 거의 무료이나 의무교육은 수용 능력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하지만 부모의 교육열은 우리나라에 못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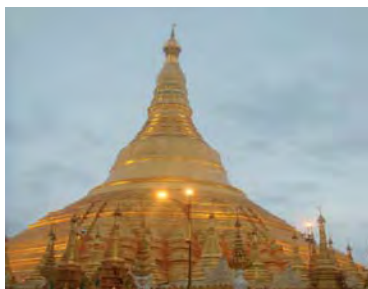
양곤과 만달레이에 있는 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인 대학 입학이 불가능하다. 1993년 9월 양곤 외국어대학교에 한국어과가 개설되었으며 1998년에는 만달레이 외국어대학교에도 한국어과가 개설되었다. 이들 대학 외에도 많은 승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8. 경제

1988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였으나 경제정책 기조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사회주의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다. 같은 해에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기업 투자 및 지사 설치를 허용하고 민간기업의 대외 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역을 활성화시켜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외화소득 증대를 위한 수출산업 부분을 개발 육성하고 AFTA 가입을 통해 ASEAN 주변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력 산업은 농업, 광업, 임업 등 1차 산업이며 최근 해상 천연가스전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자원 개발 분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천연가스, 티크 및 경목, 콩류, 의류, 수산물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 및 운송장비, 정유, 비금속제품, 전기기계 등이다.

주요 지역



양곤Yangon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인구 500만의 거대 도시이다. 도시 전체가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아름다운 공원과 호수가 있어서 '동방의 전원 도시'라 부르는 미얀마의 관문이다. 미얀마의 상징인 쉐더궁 파고다를 포함해 수많은 불탑들이 있다.



바간Bagan

세계 최대의 고고학적 유적지이며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이다. 고대 바간 왕조의 왕도로 3,000여 기의 불탑들이 화려한 문화와 건축 예술을 꽃피웠던 지난 시절의 영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보호를 받고 있으며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만달레이Mandalay

미얀마 마지막 왕조인 쁘바웅 왕조의 왕도였던 곳으로 미얀마 제2의 도시이며 사실상 미얀마족의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왕궁을 중심으로 각종 유명한 파고다들이 즐비하다.

필리핀

PHILIPPINES

마가산당 우마가?
“안녕하세요?”



PHILIPPINES

축제의 나라



흰색은 평등과 우애를, 파란 색은 평화·진실·정의를 빨간 색은 애국심과 용맹을 상징한다. 전쟁 시에는 빨간 색과 파란 색이 서로 바뀐다. 노란 태양은 자유를, 태양의 여덟 갈래 빛은 스페인에 대항한 여덟 개 주를, 세 개의 별은 필리핀의 주요 세 지역인 루손 섬, 비사야 제도, 민다나오 섬을 뜻한다.



국명 : 필리핀 공화국 Republic of the Philippines

위치 : 북쪽으로 대만, 남서쪽으로 말레이시아, 남쪽으로 인도네시아와 근접

면적 : 300,000km² (한반도의 약 1.3배)

인구 : 94,013,000명 (2010년)

수도 : 마닐라 Manila

정부 형태 : 입헌공화국

국가 원수 :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Benigno 'Noy' S. Aquino III

언어 : 필리핀어, 영어

주요 민족 : 말레이계, 중국, 미국, 스페인계 혼혈

종교 : 가톨릭 (83%), 기독교 (9%), 이슬람교 (5%), 불교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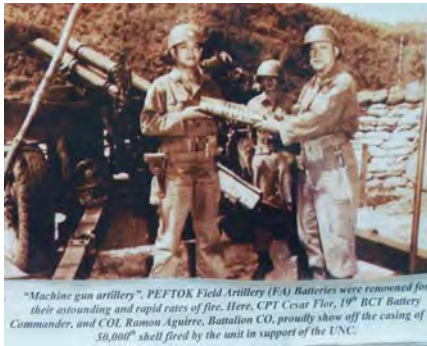
화폐 단위 : 페소 Peso

7107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루손, 비사야, 민다나오 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말레이계와 중국, 미국, 스페인 및 아랍 혈통의 후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방 식민통치 역사와 무역 상인들의 혈통이 섞여 외모와 문화적으로 독특한 동서양 혼합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3대 해변으로 꼽히는 보라카이 해변과 바나우에 마을의 계단식 논이 유명하며 특히 계단식 논은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이다.

1. 우리나라와의 관계



"Machine gun artillery". PEFTOK Field Artillery (FA) Batteries were renowned for their astounding and rapid rates of fire. Here, CPT Cesar Flor, 19th BCT Battery Commander, and COH Ramon Aguirre, Battalion CO, proudly show off the casing of a 50,000th shell fired by the unit in support of the UNC.

필리핀은 한국전 당시 우리나라에 7148명을 파병하여 철의 삼각지대에서 중공군 부대를 격퇴하는 등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운 우방국으로 지난 60여 년 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는 1963년 한국 최초의 실내체육관인 장충체육

관과 주한 미국대사관을 지을 때 필리핀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았다.

1949년 수교를 맺은 후 우리나라는 필리핀에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휴대폰 등을 수출하고, 필리핀으로부터 구리, 금속 부산물, 컴퓨터, 반도체 등을 수입한 수년 전부터 필리핀 투자를 늘려 우리나라가 외국인 직접 투자 1위국이 되기도 했다.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8년부터 3년 연속 필리핀 최다 방문국이다.

한국과 필리핀과 연간 교역액은 93억불(2010년)에 달하며 한국은 필리핀에 광물성 원료와 철강제품 등을 수출하고(58억불) 전자부품, 비철 금속제품, 농수산물 등을 수입한다(35억불).

2. 역사

포르투갈 태생 스페인 항해가 마젤란이 1521년 필리핀을 발견하기 이전부터 중국, 인도, 말레이 상인들과 무역거래를 하고 있었다.

15세기부터 민다나오 섬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교가 전파되기 시작해, 스페인이 정복을 시작할 무렵 대부분의 지역은 이슬람교 영향권 아래 있었다. 1565년부터 필리핀을 무력 정복하기 시작한 스페인은 16세기 말 북부와 중부 대부분의 지역을 식민지화했으며, 정복 지역에는 가톨릭을 전파했다. 스페인 식민통치는 1565년부터 1898년 6월 12일 독

립을 할 때까지 333년 동안 지속되었다. 스페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1898년 미국에게 필리핀 군도의 주권을 할양했다. 1935년 미국의 주권 아래 필리핀 자치정부가 수립되었으며, 1941년에는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하기도 했다. 일본군으로부터 해방된 후 미국과의 합의 아래 1946년 7월 4일 필리핀 공화국으로 독립했다.

3. 문화적 특성

필리핀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뿐만이 아니라 전통문화와 스페인, 미국 문화까지 혼합되어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로마 가톨릭이 전 인구의 83%를 차지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정령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 복잡한 종교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인들의 친족 정신은 말레이족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긴밀한 가족 관계는 중국인으로 부터 전해진 것이다. 또한 신앙심은 16세기 기독교를 전파한 스페인 사람들로 부터 물려받았다. 친절은 모든 필리핀인들의 공통된 특징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되는 요소이다.

축제를 좋아해 도시마다 마을마다 고유한 축제를 성대하게 연다. 수호성인의 축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필리핀의 축제 문화는 일 년 내내 열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4. 축제

• 아띠아띠한 축제Ati-Atihan

13세기에 이주를 한 보르네오 족장 10명과 토착민 아띠왕 마리쿠도 사이의 토지 거래를 기념하는 축제로 이 도시의 수호성인인 어린 예수산토니뇨를 기리는 행사이다. 1월 13일~19일에 열린다.

• 시눌룩Sinulog

세부에서 열리는 축제 중의 하나로 10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복장단에 맞추어 기도하는 춤을 춘다. 두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후퇴하는 춤사위가 독특하다.

- **디낙양Dinagyang**

일로일로 시민들이 일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여하는 연례행사이다. 일상의 지루한 옷을 벗어버리고 몸에 검은 칠을 한 뒤 아띠 전사의 복장으로 갈아입는다. 북 장단에 맞추어 전속력으로 뛰쳐나가기도 한다.

5. 음식

- **외국 음식의 영향**

요리 재료의 종류와 조리 방법이 다양해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쌀을 주식으로 하며 ‘가타’라고 하는 코코넛 즙을 음식의 주재료로 사용한다.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인 레천통돼지구이, 림피아튀김롤, 판싯볶은 국수 등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다. 또한 스페인의 지배로 메차도, 메뉴도, 칼로스 등 스페인 식 요리도 발달해 대중들이 좋아한다.

- **해산물 요리**

7천여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답게 해산물이 풍부하다. 해산물을 조리하는 전통 요리는 보르네오 섬에서 건너온 초기 개척자들, 즉 말레이족의 음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 역사가 깊다.

6. 사회

필리핀 사람들은 가족 친구 친지 사이의 유대관계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데 이는 바랑가이Barangay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바랑가이는 기원전 2000년~기원후 1500년에 걸쳐 필리핀으로 이주한 말레이 인들이 사용했던 60~90명 정도 탈 수 있는 배를 뜻한다. 바닷가의 바랑가이는 지역사회의 집회 장소 역할을 하는 곳이었고, 정착 후에는 독립적인 지역사회 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보통 30~100개 가정으로 이루어진 바랑가이는 필리핀 고유의 정치

사회적 기관이며 최소 행정 단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 교육

필리핀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4년 대학교 4년이 기본이며,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6세이며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중등교육(고등학교)를 수료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대학별로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4학년 때에 전국적으로 치르는 학업성취도시험 결과를 가지고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중등교육까지는 적은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개발도상국 중에서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필리핀 내 최초의 대학은 1611년에 세워진 산토토마스 대학이며 스페인 식민지시대에는 성직자들에 의한 종교 교육이 성행하였다. 그 후 미국이 필리핀 공립 초중등학교를 정비했으며 1908년에 국립필리핀대학을 설립했다. 수업은 과목에 따라 필리핀어Filipino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한다. 1970년에 필리핀 한인학교가 설립되었다.

8. 경제

극심한 빈부격차와 낮은 농업 생산성, 높은 인구 증가율과 실업률로 인하여 필리핀의 경제 상황은 아세안 국가 중 발전 속도가 느린 편에 속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회복세를 보였고 2010년에는 무역 투자 부문 자유화 확대와 정치 안정으로 34년 만에 최고치인 7.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의류, 구리, 석유화학, 가구 등이다. 주요 수입 대상국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이며 전자 반도체 등을 수입한다. 삼성전자, 아남 등 한국 회사들이 진출해 있다.

주요 지역



마닐라 Manila

필리핀 최대의 섬 루손에 있는 필리핀의 수도로 과거와 현재가 절묘하게 공존하는 도시이다. 필리핀 전 지역을 아우르는 행정·경제 상업·교육의 중심 도시다. 산티아고 요새, 성 아구스틴 성당, 말라카냥 궁, 메트로폴리탄 마닐라박물관 등이 유명하다.



보라카이 Boracay

세계 3대 해변으로 꼽히는 필리핀의 작은 진주이다. 필리핀어로 '바람의 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에메랄드 빛 바다와 산호 가루로 만들어진 해변이 특징이다. 세계비치대회에서 1등을 했다.



세부 Cebu

비사야 제도 중앙에 있는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다. 1521년에 마젤란이 유럽인 최초로 도착한 곳이며, 스페인 식민시대의 문화와 현대 문명이 공존하는 곳이다. 필리핀 남부의 상업 중심지이며 세계 각지에서 여행객들이 몰려든다.



바기오 Baguio

메트로 마닐라로부터 북쪽으로 250km 떨어져 있으며, 루손 섬 북쪽 뱅게트 주 중심 도시로 1,500m 고원 지대에 있다. 사시사철 기후가 좋아 '필리핀의 여름 수도'라 부른다.

교육 도시로도 유명한데, 쾌적한 날씨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다. 대학이 많고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

SINGAPORE

• SINGAPORE

아네사꺼싱크?
헬로우? 니하오?
“안녕하세요?”

SINGAPORE



경제 금융의 중심지



국기 윗부분의 빨간 색은 동포애와 인류애를, 아랫부분의 흰 색은 순결과 미덕을, 다섯 개의 별은 민주, 평화, 진보, 평등, 공정의 다섯 가지 이상을 뜻하며 초승달은 이러한 이상을 향해 전진하는 신생 국가 싱가포르를 의미한다.



국명 : 싱가포르공화국 Republic of Singapore

위치 : 말레이 반도 남단

면적 : 710km² (서울시의 약 1.2배)

인구 : 5,165,000명 (2010년)

수도 : 싱가포르 Singapore

정부 형태 : 내각책임제

국가 원수 : 토니 탄 Tony Tan 대통령

언어 :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주요 민족 : 중국계 (74.7%), 말레이계 (13.6%), 인도계 (8.9%), 기타

종교 : 불교, 도교,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화폐 단위 : 싱가포르 달러 Singapore Dollar

63개의 작은 섬들이 모여 구성된 도시국가로 국토의 넓이가 서울시와 비슷한 규모이며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 끝에 있다.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말라카 해협이라는 천혜의 조건을 활용하여 싱가포르는 교통, 통신의 중개지 역할과 더불어 무역, 금융,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기타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조화롭게 다민족·다종교 사회를 이루어 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SINGAPURA’ 즉 ‘사자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는 다

채로운 매력과 아름다운 관광 명소를 기반으로 휴양지로도 사랑을 받고 있다.

1. 우리나라와의 관계

1975년 8월에 수교를 한 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 3월 ‘한-싱 FTA’ 발효 이후 양국 간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양국 간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번째 FTA로 단기적 교역 확대보다 동남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인 싱가포르의 지정학적 위치와 금융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싱가포르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물류, 항만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은 무역, 해운 물류, 에너지, 전자, 건설, 금융 등에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중동 지역 외에 우리나라 최대의 해외건설 시장이기도 하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연간 교역액은 231억불(2010년)에 달하며 한국은 싱가포르에 석유제품, 선박, 해양구조물 등을 수출하고(152억불)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78억불).

2. 역사

싱가포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3세기 중국의 문헌에 흔적이 남아 있다. 14세기경 스리비자야 왕국의 일부였으며, 자바어로 ‘바다마을’이라는 뜻을 지닌 ‘테마섹’이라 불렀는데 그 후 쇠락했다.

16세기에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고 17세기에는 네덜란드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1819년 영국 동인도 회사가 상륙해 조호르의 술탄과 계약을 맺고 국제 무역항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 그 후 대영제국 식민지로 편입되었다가 1963년에 독립하여 말레이시아 연방을 구성했다. 그러나 2년 후 이념적인 차이로 연방을 탈퇴했으며 1965년 8월 9일 새로운 독립 국가로 탄생했다.

3. 문화적 특성

싱가포르는 원래 살고 있던 말레이계 인구와 이민 온 중국인, 인도인과 아랍인을 포함한 여러 민족과 문화가 다양하게 섞여 복합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 문화와 페라나칸말레이 문화에 동화된 중국인 문화,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계 문화가 주류를 이룬다.

현대식 건물 사이에 도교 및 힌두교, 불교 사원 등 역사적인 문화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다. 대학에 예술학부가 없는 등 실용주의 정책을 펴왔으나, 최근에 경제 발전과 문화 예술 부분을 연계하여 경제와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복합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4. 축제

• 음력 설날

‘Chinese New Year’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처럼 가장 큰 명절로 여기며 온 가족이 모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 하리 라야 푸아사 Hari Raya Puasa

가장 큰 이슬람 축제로 라마단 마지막 날에 열린다. 겔랑 로드 말레이 빌리지 부근에 라마단 동안 야시장이 서고 거리에 오색등을 밝힌다.

• 디파발리 Deepavali

힌두교 크리스나 신이 악마 왕인 라바나를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축제이다. 이 기간 동안 집 밖에 불을 밝혀두기 때문에 불의 축제라고도 부른다.

5. 음식

• 광둥 요리

독창성과 부드러운 감촉으로 유명한 광둥 요리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국요리이다. 싱가포르 인들은 상어지느러미 수프, 새끼

돼지구이와 닭튀김을 즐겨 먹는다. 베이징 덕, 하이나니즈, 치킨 라이스, 쓰촨요리와 학카 두부 등 다른 지역의 요리도 맛있다.

• 노냐 요리

15세기 경 말레이 반도에 이주 말레이 여자와 결혼한 중국인 후손에 의해 개발된 요리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음식 문화가 결합된 형태로 중국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말레이 향료와 함께 섞여 있다.

• 인도요리

순한 맛을 내는 북인도 요리와 매운 맛이 특징인 남인도 요리로 나눌 수 있다. 북인도 요리로는 향신료를 친 탄두리 치킨, 남인도 요리로는 피시헤드 카레가 유명하다.

6. 사회

다민족 국가로서의 통합을 위해 종교-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에 따른 상이한 사회 관습을 존중한다. 국민성은 대체로 유순한 편이며 화교들의 경우 금전관계가 명확하고 철저하다.

영국의 오랜 식민지 지배로 인해 의식 구조는 서구화되어 있으며 남녀 차별이 없다. 도시국가와 정원국가를 표방하기 때문에 ‘동남아의 별’이라고도 부른다.

공동 질서 유지를 위해 벌금제도를 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횡단을 하거나 허락되지 않은 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내야 한다. 껌을 팔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범죄율이 낮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데, 교통과 주택문제를 고려해 도시 공간 이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7. 교육

싱가포르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교육 4년 고등교육(대학 전 예비학교) 2년(3년) 대학교 4년이다. 모든 학생은 초등학교 6년과 중등학

교 4년 등 10년 동안 일반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로 구성된 사회여서 교육을 통한 국민 통합 의식 양성을 국가 존립 기반으로 삼고 있다.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으며 언어교육을 중시해 영어를 필수로 하여 반드시 2개 언어를 이수해야 하는 2중 언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 및 지식 기반 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실용주의적, 생존 전략적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매 과점마다 경쟁을 통해 소수 정예만이 대학과정을 마칠 수 있는 능력주의 교육을 한다. 1993년 3월 싱가포르 한국학교가 개교했다.

8. 경제

좁은 국토에 부존 자원이 거의 없는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대외개방형 경제를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했다. 1970년대 외자를 이용해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해 높은 성장을 이룩했으나, 1980년대 들어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전자, 기계, 제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지식 기반 위주의 경제 구조를 추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산업 개척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항으로 세계 환적량의 1/4을 담당하고 있으며, 뉴욕, 런던에 이은 세계 3대 원유 거래시장이며, 관광대국이기도 하다.

특히 국제 경쟁력 관련 주요 지표를 보면 기업하기 좋은 기업 환경 1위, 국가 경쟁력 3위, 경제 자유도 2위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주로 말레이시아, 중국, 미국과 교역을 하고 있으며 2006년 3월 한-싱가포르 FTA 발효 후 양국 간의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지역



남부 지역

싱가포르로 건너온 아랍 상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형성된 아랍 스트리트에 1828년에 건립된 술탄 모스크를 비롯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상점들이 즐비하다. 술탄 모스크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 사원이다. 인도인들이 모여 사는 리틀 인디아를 비롯해 중국인들이 모여 살던 차이나타운이 있다.



동부 지역

1920년대 중국 상인이었던 '치우주첵'의 땅이었던 주첵 거리에는 '페라나칸 집'이라고 부르는 가지각색의 무늬가 그려져 있는 아름다운 집들이 있고, 매력이 넘치고 한적한 '창이 빌리지'도 이 지역에 있다.



중부 지역

'보타닉 가든'과 '마리나시티 공원', '홀랜드마을'이 있다. '보타닉 가든'은 싱가포르 대표적인 공원으로 수 천 종의 식물이 있다. '마리나 시티 공원'은 현대적인 감각의 예술품이 있는 곳이며 '홀랜드마을'에는 일상용품부터 골동품까지 갖가지 상품을 파는 상점이 많다.



센토사

말레이어로 '평화와 고요함'을 뜻하는 센토사 섬은 1960년대 후반까지 영국군의 군사기지였다가 1972년부터 관광지로 개발되었다. 해변, 수족관, 입체 영상, 카지노, 다양한 놀이기구 등 모든 연령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즐길 거리와 무료 교통편이 잘 갖춰져 있어서 해마다 5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태국

THAILAND

싸와디 캅(카)?
“안녕하세요?”



THAILAND

자유와 땅



1917년에 만들어진 국기이며, 적색은 국가와 민족, 백색은 종교, 청색은 국왕을 뜻한다. 종교와 국왕은 태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종교는 태국 사람 95%가 믿고 있는 불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굳이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배려라 할 수 있다.



국명 : 타이왕국Kingdom of Thailand

위치 :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부

면적 : 513,120km² (한반도의 2.3배)

인구 : 63,878,000명 (2010년)

수도 : 방콕Bangkok

정부 형태 : 내각책임제 (총리 : 잉락 친나왓)

국왕 :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yadej

언어 : 타이어 (공용어)

주요 민족 : 타이족 (85%), 화교 (12%), 말레이족 (2%)

종교 : 불교 (95%), 이슬람교, 기독교

화폐 단위 : 바트Baht

지리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는 태국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인접 국가들과 국경이 맞닿아 있으며 메콩 강 지류에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서구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로 국호는 ‘자유Thai의 땅’을 의미하는 Thailand이다.

인도, 중국, 캄보디아,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은 독특한 문화유산과 유적이 남아 있는 태국은 전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대국이다.

1. 우리나라와의 관계



태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아주 각별하다. 일찍이 고려 왕조 말기와 조선 왕조 초기인 14세기 말에 태국 왕의 사신이라 자처하는 무역 상인들이 여러 번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태조 이성계는 이에 대한 답례로 태국에 사신을 파견했지만, 이 사신은 태국 국왕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왔다고 한다.

태국은 1949년 10월 대한민국을 정식 승인했다. 그리고 6.25 전쟁 발발 닷새 후인 1950년 6월 30일 쌀

4만t을 지원키로 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한국전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1950년 11월 7일 첫 파병군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등 연인원 1만 3천여 명이 참전해 136명이 전사했다.

1958년 10월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한(아홉 번째 한국 수교 국가)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양국 관계는 지난 50년 동안 외교 · 안보, 무역 · 투자, 사회 · 문화 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상생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다. 현재 ASEAN, ASEM, APEC 등 다자 관계에서도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한국과 태국 연간 교역액은 106억불(2010년)에 달한다. 한국은 태국에 강열강판, 프로세스 컨트롤러, 자동차 부품 등을 수출하며(65억불) 반도체, 천연고무, 프로세스 컨트롤러 등을 수입하고 있다(42억불).

2. 역사

타이족 기원에 관한 학설이 분분한데 대략 타이족은 AD 651년 중국

운남성에 난짜오 왕국(남조국)을 건립했으며 1253년 몽고의 쿠빌라이 칸에 의해 왕국이 정복됨으로써 남쪽으로 이동하여 현재의 태국 북부 및 라오스 북부, 미얀마 북동부에 걸쳐 소국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13세기에 이르러 타이족 소국가가 연합해 오늘날의 태국 땅에 쑤코타이 왕국(1238~1438년)을 건립했으며, 14세기에는 아유타야 왕국(1350~1767년)을 건립했다. 그러나 1767년 미얀마 군의 침략으로 아유타야 왕국이 멸망했으며, 1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한 톤부리 왕국(1767~1782년)을 거쳐 1782년에 오늘날의 랏파나꼬씬 왕국(또는 짝끄리 왕국, 1782년~현재)이 건립되었다.

19세기 들어 동남아 각국이 서구 제국주의 세력에게 독립권을 빼앗겼을 때 쾰라롱껀 대왕(1868~1910년) 치하의 태국은 유연한 외교정책과 근대화 정책을 성공시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했다. 그리고 1932년 절대군주제가 무너지고 오늘날의 입헌군주제가 도입되었다.

3. 문화적 특성

태국 문화는 기층문화, 외래 아시아 문화, 서양문화와 이러한 중층적인 문화 상황을 배경으로 삼아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국민 문화로 형성되어 있다. 그 중 초기 국가 형성에 크게 기여한 외래 아시아 문화는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 사상이었다.

불교는 고대 태국의 왕권을 정당화 하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또는 민중 신앙의 대상으로 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어서서 종교라기보다는 일종의 생활관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태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불교는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태국의 사원수는 3만 개이고 승려의 수는 30만 명에 이른다. 힌두-브라마교가 태국 문화에 미친 영향은, 국가 상징을 비쉬 누신의 탈 것인 크룻반은 새, 반은 인간의 모습으로 삼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4. 축제

- **송끄란**Songkran

태국 전통 설날로 최대의 명절이다. 공식적으로 매년 4월 13일~15일에 열린다. 물싸움 축제Water Festival로도 유명한데 서로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물을 끼얹으며 즐긴다.

- **러이**‘띄워 보낸다’는 뜻 **끄라통**Roi Krathong

태국력으로 12월 보름에 열리는 축제다. 끄라통은 바나나 잎사귀 등으로 만들어진 접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안에 양초, 선향, 꽃, 동전 등을 담아 강물이나 운하, 호수로 띄워 보내며 소원을 빈다.

5. 음식

- **툼얌**

신맛과 매운맛이 강한 태국의 대표적인 요리이다. ‘툼’은 끓인다는 의미이고 ‘얌’은 섞는다는 의미다. 툼얌 국물에 새우, 해산물, 닭고기 등을 넣고 끓이는데 그 중에 새우를 넣고 끓이는 툼얌 꿍은 세계 3대 요리로 선정될 만큼 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 **쌈땀**

파파야말라꺼를 채로 썰어 남쁠라, 프리키누세상에서 가장 맵다고 하는 작은 고추, 마늘, 라임, 소금으로 절인 민물 게나 민물 새우와 섞어 만든 샐러드다. 쌈땀을 먹을 때는 보통 까이양닭고기, 카우니여우참쌀밥와 함께 먹는다.

6.사회

태국은 사회 구조가 느슨하며 개인주의가 발달되었고, 상하관계가 뚜렷한 사회적 특징을 갖고 있다. 국왕에 대한 존경심과 권위에 복종하는 습성이 강하며 연장자에 대한 예절을 잘 지킨다. 그리고 불교적 가치관 공덕쌓기-탐분을 중시한다.

태국에서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은 무척 무례한 행동이다. 태국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고함을 지르는 것을 무례한 행동으로 본다. 일반적인 인사법은 양 손바닥을 합장한 자세로 목례와이를 한다.

외국인들이 태국의 사원을 방문할 때는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하며 국왕과 관련된 것은 태국사람들과 똑같이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좋다.

7. 교육

태국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다. 각 학교는 2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1학기는 5월 하순~10월 중순, 2학기는 11월 초순~3월 하순이다.

1학기를 마칠 때 학생들은 2개월 동안 장기방학을 하게 된다. 이 무렵 태국은 가장 더운 계절이다. 태국 학생들은 대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교복을 입으며, 일 년 내내 하복을 입는다.

한류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스무여 곳의 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그 중 전공과목으로 한국어가 개설된 대학은 일곱 곳으로, 쑹클라 나카린대학, 부라파 대학, 쉐라빠껀 대학, 씨나카린위룻 대학, 마하싸라감 대학, 나레쑤원 대학, 라차팻 치앙마이 대학이다. 또 최근에는 50여개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8. 경제

수출 지향 경제 개발도상국인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 1996년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비롯한 민간투자 증가와 수출 지향적 공업 정책으로 평균 9%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1997년 IMF 위기를 겪었지만 정치와 경제 개혁을 추진해 1999년부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2010년에는 7.8%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14개 부문(서비스, 전자전기, 식품, 섬유, 물류 창고, 가구, 자동차, 요업, 신발가죽, 고무 등)의 전략화를 추진해 ASEAN의 허브가 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주요 지역



방콕Bangkok

현재 태국의 수도로 정치, 외교, 산업, 문화의 중심지이다. 1782년 짜끄리 왕조 초대 왕인 라마 1세에 의해 수도로 정해졌다.



치앙마이Chiang Mai

태국 제2의 도시로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고유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북방의 장미'라고도 부른다. 원래 고대 란나타이 왕국의 수도로 풍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며 고산족들의 다채로운 모습이 생생한 곳이다.



쑤코타이와 아유타야Sukhothai and Ayutthaya

쑤코타이는 태국 최초로 세워진 타이족 왕국 수도이며, 아유타야는 1767년 미얀마의 침략을 받기 전까지 417년동안 태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왕국이다.



팻타야와 푸껫Pattaya and Phuket

팻타야는 태국 동부 해안 최고 휴양지로 각종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푸껫은 '안다만의 진주'라 부르는 곳으로 태국에서 가장 큰 섬이자 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다. 세계적인 휴양지답게 아름다운 해안선과 고운 백사장, 석회암 절벽, 우거진 숲이 볼 만하다.

베트남

VIETNAM

신짚아오?
“안녕하세요?”



저항정신과 독립심이 강한 나라



1976년 베트남 통일 때 국기로 제정되었다. 배경에 있는 붉은 색은 혁명의 피와 조국의 정신을 의미하며 금색 별의 다섯 모서리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 군인의 단결을 상징한다.



국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위치 :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 지역

면적 : 331,212km² (한반도의 약 1.5배)

인구 : 88,257,000명 (2010년)

수도 : 하노이 Hanoi

정부 형태 : 공산당 1당제

국가 원수 : 응우옌 민 쯔엣 Nguyen Minh Triet 국가주석

언어 : 베트남어 (공용어)

주요 민족 : 베트남 족 (89%)외 54개 소수민족

종교 : 불교 (12%), 가톨릭 (7%)

화폐 단위 : 베트남 동Dong

인도차이나반도 동부 지역에 있는 베트남은 사회 전반에 유교와 불교 사상을 토대로 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예로부터 중국, 인도, 프랑스 등 선진 문화가 유입되는 그 속에서 베트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한 실용적 습합사상習合思想우수한 것이면 배우고 받아들인다는 사상이 발달했다.

도이 머이Doi Moi 쇄신 경제 개방정책 실시 이후 경제 발전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관광산업 발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우리나라와의 관계

1956년에 구 월남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1992년에 베트남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2009년 5월부터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양적, 질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수교 이후 교역량은 약 20배, 투자는 약 100배 이상 증가했다.

2,000개가 넘는 우리 기업체가 진출해 있고 약 40만명의 베트남 근로자들을 우리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다.

전통예술 공연, 한국영화제를 비롯하여 국제태권도대회 등의 행사를 통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경제 사회 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무상 원조를 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연간 교역액은 130억불(2010년)에 달하며 한국은 베트남에 광물성 원료, 식물, 철강제품 등을 수출하고(97억불) 광물성 원료, 수산물, 섬유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33억불).

2. 역사

BC 200년경 남 비엠티(Nam Viet, 남월)라는 독립 왕국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13세기에 세 차례 몽골 침략을 받았고 1407년에 중국에게 정복되었지만, 1428년에 저항운동을 통해 중국인들을 몰아냈다.

1802년에 응우옌 폭 아인(Nguyen Phuc Anh)에 의해 통일되었고 19세기 후반부터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으나 1945년 독립을 선언했다. 게릴라전으로 제1차 베트남 전쟁(베트남에서는 항불전쟁이라고 한다)이 시작되었으며, 1954년 베트남의 승리로 끝났다.

1954년~1975년 제2차 베트남 전쟁(베트남에서는 항미전쟁이라고 한다)을 겪고 난 후 1976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통합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경제 개혁을 감행했다.

베트남은 오랜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을 끊임없이 겪어야했지만,

강인한 국민정신으로 이어졌다. 현재 170여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220여개 이상의 국가와 무역을 하며, 실리 위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제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1995년에 ASEAN에 가입했다.

3. 문화적 특성

베트남 전통가극과 수상 인형극이 유명하다. 14세기 쯤 왕조 시대부터 핫 보이(Hat Boi) 또는 뚜옹(Tuong)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전통가극은 극이 진행되는 동안 노래와 무용, 악기 연주가 함께 이뤄지며 전통 가무와 중국의 가극이 결합된 무대예술이다. 희극, 비극, 풍자극 등 600여편이 전해지고 있다.

수상 인형극은 배우들이 물속에서 인형을 조종하며 공연하는데 베트남 농민들의 정서와 혼을 느낄 수 있다.

더운 날씨 때문에 따를 많이 흘리므로 음료 문화가 발달되어 카페가 많기로 유명하다. 세계 제 2위의 커피 생산국이어서 품질 좋은 커피와 느억 짜(Nuoc cha)베트남 전통차를 넣고 끓인 물, 느억 즈어(Nuoc rua)라 불리는 코코넛, 레몬주스, 오렌지주스를 주로 마신다.

4. 축제

• 땃 응우옌 단(Tet Nguyen Dan)

베트남 최대의 명절로 우리나라 음력설이다.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가족끼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 땃 쯡 응우옌(Tet Trung Nguyen)

음력 7월 15일에 일 년 중에 가장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위령제가 열린다. 죽은 가족의 무덤을 찾아가 고인을 회고하고 영혼을 위해 절이나 탑에 음식을 시주한다.

• 쯡 투(Trung Thu)

음력 8월 15일 추석이다. 용, 비행기, 보트, 잉어 모양의 등을 어린이

들이 들고 제등 행사를 한다.

5. 음식

• 껌Com밥

밥 위에 무엇을 얹어 먹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껌 보Com bo는 소고기덮밥, 껌 가Com ga는 닭고기덮밥, 껌 땀Com tam은 음력 8월에 수확한 햅쌀로 지은 밥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얹은 것이다.

• 퍼Pho국수

퍼보는 소고기를 얹은 쌀국수, 퍼가는 닭고기를 얹은 쌀국수이다. 숙주, 응오Ngo향채 등의 채소와 레몬이 함께 나오는데 취향에 따라 국수를 넣어 먹는다.

• 꾸온Cuon쌈류

꾸온은 ‘말다’라는 뜻이다. 월남 쌈으로 알려진 ‘고이 꾸언’Goi cuon은 따뜻한 물에 적신 라이스 페이퍼에 삶은 새우, 얇게 썬 돼지고기, 생국수, 채소 등을 넣고 싸낸 음식이다.

6. 사회

베트남인들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지배와 그에 따른 독립투쟁, 프랑스, 일본, 미국의 침입을 겪었기 때문에 저항정신과 독립심이 강하다. 특히 프랑스, 미국 등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강하고 단결이 잘 된다.

또한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경로사상이 발달되어 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한 편이고 옷차림은 대부분 바지를 즐겨 입는데 특별한 날,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를 입는다.

7. 교육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되어 있고 신

학기가 9월에 시작된다. 모든 교육과정이 남녀공학이며 여고생의 경우, 베트남의 전통 복장인 아오자이를 입는 것이 특이하다.

진학률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며 호치민, 하노이 등이 높은 편이다. 학생 수에 비해 교육 시설이 부족해 2부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열이 매우 높고 대학입시 경쟁도 치열하다. 국립하노이대학교, 호치민대학교, 하노이 외국어대학교, 다랏대학교, 다낭대학교, 인문사회과학원 등에 한국어과 및 한국학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다.

8. 경제

1979년 경제개혁 노선을 부분적으로 도입했으며 1980년대 이후 단계적으로 경제개혁과 개방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86년 ‘도이모이’쇄신 정책을 채택하여 본격적인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 5개년 경제 사회 개발 계획을 수립했으며 2007년 6월 ‘한-ASEAN FTA’ 상품 협정을 체결했다. 고도 경제성장에 이은 경기 과열 현상 및 대외 경기 침체로 당분간 저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천연자원과 풍부한 인적자원 등을 잘 활용하면 무한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 섬유 및 의류, 신발류, 수산물, 목제품, 컴퓨터 및 전자부품 등이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순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정유, 기계 부품, 철강, 섬유 및 의류 원단, 화학제품, 동물사료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싱가포르, 대만 순이다.

주요 산업은 농림업(커피 세계 2위 수출국, 후추 세계 1위 수출국), 수산업, 광업(원유, 무연탄) 등이다.

주요 지역



하노이 Hanoi

수천 년 동안의 역사적인 풍량에도 불구하고 구 시가지와 600개 이상의 탑과 사원 등이 보존되어 있다. 1049년에 세워진 일주사, 1070년 건립된 문묘, 하노이 요새, 호치민 묘소 등이 있다. 은공예를 비롯한 칠기와 수예 등 다양한 전통공예가 발달했다.



호치민 Ho Chi Minh

베트남 제 2의 도시로 상업, 과학, 기술, 공업 등의 중심지이다. 특히 최근의 개방정책으로 다른 도시보다 활기가 넘쳐난다. 남쪽과 북쪽은 운하로, 동쪽은 사이공(Saigon) 강으로 둘러싸여 아름답고, 외적을 방어하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롱베이 Vinh Halong Bay

삼천여 개의 섬과 에메랄드 빛 바다를 자랑하는 하롱베이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명승지이다. 경관이 매우 수려하며 바다와 자연이 빚어낸 석회암 섬들이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후에 Hue

베트남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 왕조의 수도로 1802년~1945년에 이르는 50여 년 동안 역사의 영화와 몰락을 고스란히 경험한 도시다. 거대한 규모의 왕궁과 도시 곳곳에 있는 응우옌 왕조 황제들의 무덤이 베트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 교류

asean



한국과 아세안 교류사

HISTORY OF ASEAN-KOREA RELATIONS

아세안 음식 문화

ASEAN FOOD CULTURE

아세안과 한국의 세계유산

UNESCO WORLD HERITAGE SITES IN ASEAN

아세안 퀴즈

QUIZ ON ASEAN



한국과 아세안의 교류사

asean

고대 한반도와 동남아시아의 교류-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다

최근 아시아 사람들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남아시아 민족들이 동북아시아 민족들보다 아시아 지역에 먼저 터를 잡게 되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해 한반도와 일본열도 등에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고 밝혀졌다.

이것은 한반도 민족과 문화가 남방, 특히 동남아시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입석, 석관묘, 지석묘 등을 한반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선사시대에 남방에서 우리나라로 문화가 흘러들어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고대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는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졌다. 신라시대 혜초를 비롯한 여러 스님들은 불교 공부를 위해 인도로 갈 때 중국에



타이의 옛 상선 대략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들로 항해하면서 무역을 한 타이 상선. (출처 : Derick Garnier, Ayutthaya : Venice of the East, Bangkok : River Books, 2004.)

서 배를 타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과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는 바닷길을 주로 이용했다.

고려시대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한반도에 온 일이 있었는데 특히 13세기에 베트남 왕족인 ‘리롱프엉’이 자신이 섬기던 베트남 왕조가 망하자 배를 타고 황해도 웅진군 화산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다고 한다. 그는 고려 조정에게 의해 화산군에 봉해졌고 뒤에 ‘화산이씨’의 시조가 되었다.

조선 초기-태국 및 인도네시아와의 교류

고려 왕조 말기와 조선 왕조 초기인 14세기 말에 태국 왕의 사신으로 자처하는 무역 상인들이 여러 번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태조 이성계는 이에 대한 답례로 태국에 사신을 파견했지만, 이 사신은 태국 국왕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1406년에는 인도네시아로 부터 자신을 자와(자바) 왕국의 사신이라고 소개하는 한 무역 상인이 조선을 찾아왔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무역 상인들은 우리나라 무역 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을 갖고 한반도에 온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방문 이야기는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조

선과 태국 및 자와(자바)섬 간의 무역 관계는 왜구가 번번이 선박을 습격해 화물을 약탈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바람에 위험한데다 해외무역에 대한 조선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계속 발전되지는 못했다.

16세기 말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태국은 중국의 명 정부에게 일본을 배후에서 공격하여 조선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태국이 장거리 항해와 대규모 병력 동원이 요구되는 일본 원정을 실제로 수행할 능력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이 그러한 제안을 한 까닭은, 태국이 중국, 동남아시아 여



난 왓푸민 벽화 타이 북부의 작은 도시인 난에 있는 왓푸민 사원 벽화. 외국 상선들도 강을 따라 올라와 장사를 했다. (출처: 조흥국 사진)



보로부두르 정크 인도네시아 자바 섬의 보로부두르 사원 부조에 새겨져 있는 정크선. 자바 섬이 오래 전부터 대외무역을 활발히 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출처: 조흥국 사진)

러 나라들과 활발히 무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으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무역을 하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기-베트남과의 활발한 교류

17세기 조선과 베트남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 정유재란 때 경상도 진주에 살던 ‘조완벽’이란 선비가 일본에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일본 상인을 따라 1604년~1606년 베트남을 세 번 방문했다.

그가 베트남에서 관찰하고 경험한 것이 <조완벽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당시 베트남 사대부들 중에 조선을 예의 있는 나라로 칭송하며 조선 시대 유명한 문인이자 관료인 이수광의 시를 애송하는 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1687년에는 제주도 주민 24명이 표류해 중부 베트남 호이안까지 간 일이 있었는데, 이들 중 세 명은 베트남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찬 물을 얻어 마시고 죽었다고 한다. 물을 끓여 마셔 목숨을 부지한 나머지 사람들은

베트남 정부의 자상한 배려로 그 이듬해 고향에 무사히 돌아왔다.

조선왕조 시대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살펴보면 베트남과의 교류가 가장 많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베트남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한반도에



호이안 항구의 상선 베트남 중부 호이안 항구에 있는 한 중국 사원에 걸려 있는 그림. 해외무역으로 활기찬 항구의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출처 : 조흥국 사진)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 외에도 중국과 조공 관계에 놓여 있던 양국이 중국에서 서로 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조공 관계의 배경 아래 두 나라의 사신들은 15세기~19세기 초 중국의 수도에서 만나 서로 시문을 주고받았다. 그러한 만남을 통해 그들은 한편으로는 사적인 교분을 쌓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나마 상대방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두 나라 사신들이 서로 빈번하게 교제를 나누었던 까닭은, 유교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자신의 문화적 품위와 자국의 국가적 품격에 손색없는 파트너로 상대방을 인정하여 교류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양국 사신들 간에는 동지에 내지는 우정이 있었으며, 그러한 만남을 통해 조선에서의 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19세기까지 끈끈히 이어졌다.

전쟁을 통해 이루어진 20세기 한국-동남아 교류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는 19세기까지는 대부분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중국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또 지속적이라기보다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에 비해 20세기에는 양자 간의 교류가 훨씬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그렇지만 그 관계가 항상 긍정적인 면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한국인들이 동남아시아를 방문했으나, 그것은 일본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강제징집하여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의 전선에 내보내고, 또 한국 여성들을 미얀마 등에 주둔하는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함으로써 이루어진 비극적인 역사 속의 교류였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 때 태국은 우리나라에 육군 보병 약 1,300명과 해군 프리깃함 7척 그리고 공군 수송기 1개 편대를 파병했다. 필리핀은

약 1,500명의 육군을 파병했다. 태국군은 136명이 전사하고 46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필리핀은 112명이 전사하고 356명이 부상(실종 57명 포함)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과 아세안, 친구가 되다

20세기 후반부터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볼 때 상호 건설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은 1949년 필리핀을 필두로 1958년 태국, 1960년 말레이시아, 1973년 인도네시아, 1975년 싱가포르 등과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오늘날 아세안의 모든 나라들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며 더욱 긴밀하고 활발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는 최근 인적 교류도 크게 늘고 있다. 매년 동남아시아로 가는 우리 관광객 수는 수백 만 명에 이른다. 유학, 직업 또는 결혼 등으로 한국에 유입되는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 한류의 확산됨에 따라 드라마와 영화, 가요, 패션 스타일 등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세안의 모든 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 핵심 대상 지역 중 하나가 아세안이다. 중국과 일본 등 아세안을 둘러싼 여러 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동남아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더욱 친밀하게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과 유럽, 중국과 일본 중심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졌다면 이제 아세안을 알고 이해하며, 아세안 사람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아세안 음식 문화

asean

외국 문화의 영향으로 더욱 다채로운 아세안 음식

동남아는 전반적으로 적도 부근에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열대 기후를 보이고 있다. 주식^{food staple}은 쌀과 생선이다.

동남아 지역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음식 중에서 토착 음식 외에 인도·중국·아랍 문화의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식민시대를 거치며 유럽의 음식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이된 까닭에, 더욱 다채로운 음식 문화가 형성되었다.

특히 17~18세기경부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서부 동남아 지역에 유럽 세력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식민 모국인 스페인과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부터 새로운 농작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럽의 음식 문화가 유입되었다.



각종 야채와 허브를 파는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 (2005년 8월)

유럽 식민화 과정에서 필리핀에는 전통 디저트를 포함한 스페인의 Fie sta 음식이 들어왔고, 브루나이 왕국의 술탄도 스페인 음식을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말레이 반도의 무역 중심지 말라카 지역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영향을 차례로 받았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다양한 외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인구가 2억이 넘는 도서부 동남아 지역의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음식 문화만 보아도 하나의 민족국가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 상이하다.

한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를 비롯한 대륙부 동남아 지역에도 프랑스 및 유럽 열강의 음식 문화가 유입되었는데, 베트남의 바게트 샌드위치, 태국 음식에 들어가는 매운 고추 등은 유럽 음식 문화의 유산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남아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 코드, 무슬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주요 종족인 말레이는 전 세계 무슬림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말레이 무슬림이 주로 분포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남부 지역,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는 뽕족한 침탐의 모스크와 함께 무슬림 음식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도시나 지역 사회의 중심부에는 달 모양의 상징이 달린 둥근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하루에 다섯 번씩 코란을 읽는 소리가 들려온다. 모스크에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어야 하고 여성의 경우 신체를 노출하는 복장을 입어서는 안 된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숙박업소에 가면 천장의 화살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고급 호텔이든 허름한 여관이든 메카의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에 맞추어 기도를 올린다. 가정에서도 아랍어로 된 코란이나 계율의 일부를 적어놓은 벽걸이 액자를 걸어놓고 신앙심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계율보다 무슬림의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음식 문화이다. 무슬림들은 반드시 ‘할랄(Halal)’ 음식만을 먹어야 하고, 1년에 한번씩 있는 금식 기간인 라마단(Ramadan)’을 지켜야 한다. 현재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교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슬람 법에 의해 허락된 음식인 ‘할랄(Halal)’ 음식과 시체, 피, 돼지고기,



무슬림을 위해 설치된 메카의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 (싱가포르 공항, 2003년 2월)



라마단 예배가 끝나고 음식을 준비하는 남자들 (2010년 8월)



식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 되는 음식, 템페(Tempe)

물소와 다른 장소에서 도살된다. 인도네시아 전역의 패스트 푸드점에서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로 만든 햄버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프라이드치킨이나 치킨버거를 판매한다.

인도네시아 음식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템페(Tempe)이다. 이탈리아의 피자나 미국의 햄버거처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다. 전반적으로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운 인도네시아 식단에서 식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으로 콩을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자바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템페가 새로이 개발되었으나 별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맥도널드와 KFC 매장도 ‘할랄(Halal)’ 인증 음식 판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서구의 패스트푸드가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비만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반면에 도시 빈민가나 농촌 지역에서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한편 코카콜라에 맞서기 위해 등장한 이슬람계 ‘메카 콜라’도 동남아시아 지역 무슬림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라크 전쟁 이후 최근의 반미 감정이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않은 동물인 ‘하람(Haram)’음식은 엄격히 구분되며, 모든 도살장이 정부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

무슬림에게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인 돼지는 황소, 양,

메카 콜라의 인기 상승에 기여하는 가운데 순 수익금의 10%를 팔레스타인 빈민들을 위해 기부하고 또 다른 10%는 해당 영업 지역 자선단체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통해 무슬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말레이시아 KFC 매장, 매콤한 칠리소스가 제공되며 무슬림에게 할랄푸드 Halal Food임을 강조하는 광고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2003년 8월)

무슬림의 금기 사항은 항공기 내부와 같은 국제적인 공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랍계 항공을 이용하면 술이나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특히 이슬람 근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때 진정한 무슬림으로 인정받는다.

독실한 무슬림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할랄 음식HalalFood인지, 아닌지 꼭 확인한다. 맥도널드 매장이거나 심지어는 중국계 식당에서도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지판과 함께 할랄Halal 인증 마크를 붙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할랄Halal 논쟁을 피하기 위해 쇠고기 햄버거를 주 메뉴로 하는 맥도널드보다는 KFC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이 더 널리 퍼져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무슬림 지역에서는 기존 햄버거 매장도 치킨버거와 프라이드치킨을 주로 판매한다.

이들 지역에서 ‘Kampung Fried Chicken’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KFC를 말레이의 농촌인 ‘캉퉁Kampung’의 정취와 연결시킬 정도로 KFC는 이제 거의 토착화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할랄(Halal) 인증 표시를 내건 말레이시아 음식점 (2010년 7월) 같은 말레이 전통 방식으로 과자나 빵을 굽는 베이커리에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절대로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버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와 함께 판매되는 케이크와 빵이 무슬림 공동체에서 인기가 높다. 또 라마단 기간에는 낮에 음식을 먹지 못하는 계율로 인해 거리가 한적하지만, 해가 지고 난 이후에는 무슬림의 생활 공간에 활기가 넘친다. 즉,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개발한 라마단 뷔페를 비롯하여 낮 동안의 금식을 보상하고도 남을 다양한 음식 행사가 펼쳐져 라마단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축제가 된다.

세계인의 고급 건강식으로 각광받는 태국·베트남 음식

태국과 베트남은 비옥한 평야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쌀과 채소, 강과 바다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생선 및 패류를 활용한 음식이 주를 이룬다. 불교의 영향으로 육식보다는 다양한 채식 문화가 발달하여, 서구인에게 고급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기름과 육류를 많이 쓰는 느끼한 중국 음식과는 달리 다양한 향료와 허브로 재료의 담백한 맛을 살리는 태국 및 베트남 음식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건강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기를 양념한 후 숯불에 굽는 동남아 무슬림 전통 음식 ‘사떼(Satay)’도 소고기가 아닌 양고기와 치킨을 이용한 사떼가 대부분이다. 제과점도 서구화된 제과점보다 ‘Bergawan Solo’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베트남 음식점이 급격히 늘어나고 쌀국수와 월남쌈 등이 일반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태국 음식점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이다.

미주와 유럽 전역에서도 베트남 쌀국수인 ‘퍼Pho’와 함께 태국의 볶음국수인 ‘팟 타이Phat Thai’와 코코넛을 넣은 부드러운 ‘그린 커리Green Curry’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과 동남아 식재료를 판매하는 슈퍼마켓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태국 여성의 결혼 이주가 많은 영국에서는 전통적인 대중음식점인 펍pub에서까지 태국 음식을 주 메뉴로 내놓을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다. 런던의 시내 중심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급 음식점은 단연 태국 레스토랑이고 다양한 메뉴와 함께 세련된 실내 장식으로 현지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태국 정부는 태국 음식과 음식점을 활용한 관광 마케팅을 통해 세련된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고 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아세안과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asean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란?

1972년, 유네스코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기 위하여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을 제정했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세 가지로 구분된다. 세계유산은 전 세계 153개국의 936건(2011년 7월)이 등재되어 있다. 세계협약가입국은 187개국이며 이중 아세안은 7개국 31건, 한국은 10건을 보유하고 있다.



캄보디아CAMBODIA

협약 가입일 : 1983년 5월 24일(총 2건)

앙코르Angkor

| 문화유산, 1992년 지정

동남아시아 중요한 고고 유적지 중의 하나이다. 산림지역을 포함한 면적이 약 400km²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이다. 앙코르는 9세기~15세기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으며 앙코



르와트를 비롯한 바이온 사원 등이 남아 있다. 전 세계적인 보존 노력과 더불어 유네스코에서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프레아비히어 사원 Temple of Preah Vihear

| 문화유산, 2008년 지정

11-12세기에 건축된 시바의 신을 모시는 힌두교 사원이다. 사원은 라 테라이트와 사암으로 만들어져 있고 2,80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캄보디아 평원이 내려다보이는 당렉 산맥 정상에 525m 절벽 위에 있어서 유적이 부분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INDONESIA

협약 가입일 : 1980년 12월 22일(총 7건)

보로부두르 사원 Borobudur Temple Compounds

| 자연유산, 1991년 지정

요그야카르타 마글랑Magelang에 있는 보로부두르 사원은 미얀마의 바간 사원,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와 더불어 세계 최대 불교 사원 중의 하나로 마하야나Mahayana불교의 기념비적 건축물이다.



약 9세기 초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200만개의 돌을 쌓아 만든 거대한 대칭형 불탑으로 석조물의 무게는 350만 톤에 달한다. 불교가 쇠퇴 하고 자바 인들이 이슬람교로 귀의 함에 따라 천 년 동안 열대 수풀 속에 버려졌다가 자바 섬이 영국의 지배를 받던 시기인 1814년에 발견되었다.

1973년 유네스코 주도 아래 대규모의 보존, 보수 등 다양한 복원작업

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었다.

보로부두르란 산스크리트어로 ‘언덕 위의 승방’이란 뜻을 갖고 있다.

산기란 초기 인류 유적지 Sangiran Early Man Site

| 문화유산, 1996년 지정

자바 섬의 중부 솔로 강 유역에 있는 화석 유적지이다. 1934년 독일 인류학자 쾨니히스발트Gustav Heinrich Ralph von Koenigswald가 이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한 이래 현생 인류의 최초 조상인 호모 에렉투스의 화석을 발견하였다. 이후 60여개 이상의 인류 화석을 발굴하였으며, 원시 시대 유적 등을 발견하였다. 인류 진화 과정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라오스 LAO PDR

협약 가입일 : 1995년 1월 10일(총 2건)

루앙프라방 시 Town of Luang Prabang

| 문화유산, 1995년 지정

동남아시아 전통 건축과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건축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라오스 북서부 지역 메콩 강 유역에 있으며 루앙프라방 문화 유적 중에 가장 매혹적인 곳은 오래된 시가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수십 개의 불교 사찰들이다. 루앙프라방은 ‘큰 불상’을 뜻하는 말이다.



참파삭 문화지역 내 왓푸 사원과 고대 주거지

Wat Phou & Associated Ancient Settlements within the Champasak Cultural Landscape

| 문화유산, 2001년 지정

라오스 남부 크메르 왕조 때의 사원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힌두교의 믿음을 반영하도록 계획된 곳이다. 5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역사를 아우르는 곳인데 17세기에 지진이 일어나 사원이 많이 파괴되었다. 산 정상에서 강변으로 이어지는 축을 이용하여 절 사당, 분수를 10km가 넘는 지면에 건축했다. 왓푸는 ‘산에 있는 절’이라는 뜻이다.



말레이시아 MALAYSIA

협약 가입일 : 1988년 12월7일(총 3건)

키나발루 공원 Kinabalu Park

| 자연유산, 2000년 지정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키나발루 산(4101m)이 중심이 된 공원으로 보르네오 섬 최북단에 있다. 15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산으로 다양한 생물상과 높은 풍토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모든 개화식물군 절반 이상의 대표성을 획득한 자연유산으로 생물학적 다양성을 자랑하고 있다.



구능물루 공원 The Gunung Mulu National Park

| 자연유산, 2000년 지정

석회암 동굴을 비롯한 카르스트 지형의 생태 변화 추이를 관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17가지 열대식물지역 및 3500 종류의 관엽 식물이 분포되어 있다. 구능물루에는 20여개의 석회암 동굴이 있으며 수백만 마리 박쥐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장엄한 석회암 봉우리, 깊은 협곡과 넓은

강, 열대림과 습지대, 동굴 등의 다양한 모습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필리핀 PHILIPPINES

협약 가입일 : 1979년 1월 16일(총 5건)

필리핀 바로크 양식 교회

Baroque Churches of the Philippines

| 문화유산, 1993년 지정

필리핀의 마닐라, 산타마리아 파오아이, 미아그아오에 있는 네 곳의 바로크 풍 교회이며 16세기 말 스페인 선교사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중국과 필리핀 공예가들에 의해 재해석된 유럽 바로크 스타일의 융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필리핀의 계단식 벼 경작지, 코르디레라스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s Cordilleras

| 문화유산, 1995년 지정

루손 섬 해발 1000~1500m 고지에 형성된 대규모 계단식 논이다. 2000년 전부터 코르디레라스 산맥의 가파른 경사지를 깎아 논을 만들고 벼농사를 지어왔다. 논둑을 이을 경우 그 길이가 2만km가 넘는다. 계단식 경작지는 단순한 농경지의 역할을 뛰어넘어 흙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식과 신성한 전통이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 전승되었으며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로우미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다.





태국 THAILAND

협약 가입일 : 1976년 7월 23일(총 5건)

쑤코타이 역사도시 Historic Town of Sukothai

| 문화유산, 1991년 지정

13세기부터 14세기에 시암 왕국의 첫 번째 수도였다. 태국 건축의 기초를 알려주는 수많은 유명 기념물 즉 직사각형의 성벽, 왕궁과 불교 사원, 승방, 인공호수, 제방 등이 남아 있으며 불교 관련 유적들이 많다.

아유타야 역사도시 Historic city of Ayutthaya

| 문화유산, 1991년 지정

1350년에 건설된 쑤코타이에 이은 시암 왕국의 두 번째 수도이다. 1767년 미얀마의 침입으로 도시가 파괴될 때까지 417년 동안 번성했던 곳이다. 일부 현존하는 사리탑과 거대한 수도원, 왕궁과 요새 등은 과거의 영화로움을 전해주고 있다. 왕궁 안에 세워진 사원으로 아유타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원은 왓프라시산팻이다. 역대 왕의 유골을 안치한 탑 3개가 남아 있는데 15세기 말에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VIETNAM

협약 가입일 : 1980년 11월 6일(총 5건)

하롱 만 Ha Long Bay

| 자연유산, 1994년 등재, 2000년 확장

통킹 만에 위치해 있으며, 크고 작은 3000여개의 기암괴석과 섬들이

있다. 광대한 석회암 지역으로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빛이 변하며 장엄한 바다 풍광을 연출한다. 험준한 자연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섬들이 무인도로 남아 있고 인간에 의해 영향 받지 않은 천연지역이지만 약 7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는 사람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후에 기념물 집중지대Complex of Hue Monuments

| 문화유산, 1993년 지정

1802년 통일 베트남의 수도로 건설되어 1945년까지 응우옌Nguyen왕조 치하의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중심지였다. 독특한 봉건시대 수도로 아름다운 자연미를 자랑한다. 응우옌 왕조의 13대에 걸친 황제들이 잠든 황릉과 사원이 유명하며 건축 양식은 중국과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으나 통일된 양식보다는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KOREA

협약 가입일 : 2006년 6월 3일(총 10건)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공동 지정된 석굴암과 불국사Seokguram Grotto and Bulguksa Temple, 1997년 지정된 창덕궁Changdeokgung Palace Complex을 비롯해 2009년에는 40기의 조선 왕릉이 한꺼번에 지정되었고 2010년 7월 31일,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이 새로 지정되는 등 한국에는 총 10건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용어 정리

asean

아세안+3 APT, ASEAN Plus Three

한-아세안 정상회의 ASEAN-ROK Summit

1997년 ASEAN은 창설 30주년을 계기로 ASEAN 정상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을 초청하여 제1차 ASEAN+3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이어서 별도의 제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다.

그 후 지속적으로 '아세안+3회의'와 더불어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사업의 영역을 경제 통상 분야뿐만이 아니라 IT · 문화 · 청소년 분야까지 넓혀나가고 있으며 아세안 안에서의 개발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례회의와는 별도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여

2009년 6월 제주에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아세안 대화관계 ASEAN Dialogue Partnership

아세안 대화상대국 ASEAN-Dialogue Partner

한-아세안대화 ASEAN-ROK Dialogue

아세안 회원국의 지역 외 시장 개척, 인적자원 개발, 아세안 경제 발전을 위한 자본 · 기술 확보 필요성 차원에서 아세안은 1974년 호주와 대화 관계를 시작했다.

현재 아세안 대화상대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뉴질랜드,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인도, 중국, 러시아 등 10개국(지역)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부문별 대화 관계 수립에 이어 1991년 완전 대화 상대국 관계로, 한-아세안 대화ASEAN-ROK Dialogue를 매년 갖고 양 지역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아세안헌장 ASEAN Charter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2007년 아세안은 창설 40주년을 맞아 공동체의 헌법 역할을 하게 될 ‘아세안헌장’과 ‘아세안경제공동체’ 설립을 위한 청사진에 서명했고 2008년 12월 아세안헌장이 발효됨으로써 유럽연합EU과 같은 강력한 지역공동체를 향한 아세안 통합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아세안헌장은 국제기구로서 아세안에 ‘법인체’의 지위를 부여하며 지역의 경제와 통상 개방으로 2015년까지 단일시장과 단일 생산 기반의 아세안경제공동체AEC 구축하는 것 골자로 하고 있다.

*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www.asean.org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ASEAN Regional Forum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한 정부 간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와 이해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자 안보 협의체이다.

아세안이 연간 개최하는 외교장관회의의 틀을 활용하여 1994년 태국에서 제1차 ARF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된 후 2011년 7월 제18차 ARF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현재 회원국은 아세안 10개국, 아세안 대화 상대 10개국 및 기타 7개국 방글라데시, 북한, 몽골,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스리랑카, 동티모르 등, 총 27개국 EU 포함으로 구성되어 남·북한이 동시에 지역 안보 현안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 한국은 1994년 제1차 ARF회의부터 참석한 창설 회원국이다.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

2002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최종 보고서의 중·장기 협력 사업 가운데 하나로서 창설되었다.

2005년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1차 EAS회의 개최 이후 매년 열리며 현재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였으며, 2011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부터 미국과 러시아가 합류함으로써 아세안 10개국을 포함, 총 18개국 회의체로 확대되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Asia-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 양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한 지역 간 협력체제로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공동 협력 사업을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회의이다.

1996년 3월 방콕에서 아시아 10개국 ASEAN 7개국 :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및 한국, 중국, 일본과 유럽연합 EU

15개국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모여 제1차 ASEM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후 매 2년마다 한 번 개최되고 있으며 2004년 회의부터 아세안 10 개국이 모두 참가했다. 지난 2000년에는 서울에서 제3차 ASEM 정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2011년 현재 회원은 총 48개로 아시아, 유럽, 제3그룹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등 46개국과 EU 집행위, ASEAN 사무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마단 Ramadan

라마단은 아랍어로 ‘더운 달’을 뜻하며 이슬람력 9월을 가리킨다. 이슬람에서 9월은 ‘코란’이 내려진 신성한 달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라마단 시작일은 1년이 354일인 이슬람력의 아홉 번째 달 첫날에 시작된다. 이슬람교도들은 이 기간 동안 일출에서 일몰까지 의무적으로 금식하고 하루에 세번~다섯번 성지 메카나 메디아를 향해 기도하며 철저히 절제된 생활을 한다. (참고 : 93~99쪽 아세안 음식 문화)



아세안 퀴즈

01. 다음 중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 아닌 곳은?

- a. 브루나이 b. 라오스 c. 동티모르

정답 ㉠ | 동티모르는 2002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아세안에 참석하고 있으나 아세안 회원국은 아니다. 현재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다.

02. 아세안이 경제공동체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해는 언제일까요?

- a. 2013년 b. 2015년 c. 2020년

정답 ㉢ | 아세안은 2015년까지 단일시장과 생산기반을 통한 경제공동체구축을 목표로 통합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03. 다음 중 국왕이 통치하는 국가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 a. 태국 b. 브루나이 c. 인도네시아

정답 © |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이다. 태국은 현재 라마 9세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브루나이는 현재 하사날 볼키아 국왕이 통치하는 입헌군주 국가이며, 그 외에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역시 입헌군주 국가이다.

04. 다음 중 브루나이 최대 수출 품목은 무엇일까요?

- a. 석유 및 천연가스 b. 목재 c. 의류

정답 @ | 브루나이는 연 70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의 수출로 매년 6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05. 세계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이며 캄보디아 국기에도 나타나 있는 앙코르와트는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나요?

- a. 프놈펜 b. 바탐방 c. 시엠립

정답 © | 캄보디아 북서쪽의 시엠립에는 앙코르와트 이외에도 1,000개 이상의 유적들이 앙코르 유적군을 이루고 있다.

06. 인도네시아에는 섬이 총 몇 개 있나요?

- a. 100개 이상 b. 1,000개 이상 c. 10,000개 이상

정답 © | 인도네시아는 약 17,000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국가로 전체 면적만 해도 190만㎢로 한반도의 아홉 배가 된다.

07. 다음 중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 a. 베트남 b. 필리핀 c. 인도네시아

정답 © | 아세안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 있다.

08.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내륙국입니다. 라오스와 접경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 a.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b.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c. 태국, 미얀마, 브루나이, 필리핀

정답 @ | 라오스는 동쪽으로 베트남, 서쪽으로 태국, 남쪽으로 캄보디아, 북쪽으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09.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면 계명을 지킨 것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열리는 이 축제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a. 하리 라야 아이덜 피트리 b. 송끄란 c. 분타루앙

정답 @ | 대부분의 국민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말레이시아 최대 명절로 브루나이, 싱가포르에서도 축제로 기념하고 있다.

10. 9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군도이며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말레이시아의 지역은 다음 중 어디인가요?

- a. 페낭 b. 쿠알라룸푸르 c. 랑카위

정답 ㉔ | 석회암 지대의 동굴, 빙하기의 종유석 등이 있는 자연환경으로 2007년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11. 다음 중 미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a. 미얀마 사람들은 내세의 삶을 위해 공덕을 쌓는 일, 특히 파고다를 건축하는 종교적 행위에 중점을 둔다.
- b. 아시아 국가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다.
- c.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하여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정답 ㉔ | 도이모이(쇄신)는 베트남의 경제 개방 정책이다.

12. 다음 중 필리핀 기술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에 세워진 건축물을 고르시오.

- a. 주한프랑스대사관 b. 주한미국대사관 c. 서울시립미술관

정답 ㉔ | 광화문의 주한미국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건물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체육관인 장충체육관 역시 필리핀 엔지니어의 도움으로 1963년 지어졌다.

13. 다음 중 한국전 당시 파병을 했던 아세안 국가는 어디일까요?

- a. 브루나이 b. 라오스 c. 필리핀

정답 ㉔ | 필리핀은 한국전 당시 우리나라에 7,148명을 파병하여 철의 삼각지대에서 중공군 부대를 격퇴한 우방국으로 지난 60여 년 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14. 다음 중 싱가포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 국가 전체가 하나의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이다.
- b. 영어를 필수언어로 하여 2개 언어를 이수해야 하는 2종 언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c. 이슬람 사원인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가 유명하다.

정답 ㉔ | 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는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세리베가완에 있다.

15. 태국 제2의 도시로 '북방의 장미'라고 불리는 관광지는 어디인가요?

- a. 하룽베이 b. 치앙마이 c. 보라카이

정답 ㉕ | 치앙마이는 태국의 수도인 방콕에 이은 제2의 도시이며 과거 란나 왕국의 수도였다.

16. 다음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베트남의 명승지는 어디일까요?

- a. 문묘 b. 하룽베이 c. 사이공 강

정답 ㉖ | 삼천여 개의 섬과 에메랄드 빛 바다를 자랑하는 하룽베이는 199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외에도 베트남에는 후에 기념물 집중지대(1993, 문화), 성자 신전(1999, 문화), 호이안 고대도시(1999, 문화), 푹 나케방 국립공원(2004, 자연), 하노이 탕롱 황성의 중앙부(2010, 문화) 총 6개의 세계유산이 있다.

한-아세안센터 ASEAN-KOREA CENTRE

asean

한-아세안센터 설립 ESTABLISHMENT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수립 20주년을 맞은 지난 2009년 3월,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10개 회원국 간 교류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1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회원국 정부는 ‘한-아세안센터설립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회원국 등 11개 전 회원국이 비준 동의를 마치고 2008년 12월, 동 양해각서의 발효와 함께 한-아세안센터가 설립됨으로써 한국과 아세안간 협력을 제도화한 새로운 협력관계의 장을 열게 되었다.

한-아세안센터의 활동

MANDATES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교역 규모 증대, 투자 촉진, 관광 활성화 및 문화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인적 교류를 통한 양 지역 국민간의 이



한-아세안센터 창립식 (2009년 3월)

해와 우호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아세안센터 회원국

MEMBERSHIP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세안 홀

한-아세안센터 사무국

SECRETARIAT

한-아세안센터는 서울 프레스센터빌딩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사무총장 이하 개발기획총무부, 무역투자부, 문화관광부, 정보자료부 등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아세안 홀 입구

한-아세안센터 '아세안 홀ASEAN HALL'

한-아세안센터는 아세안 회원국과 우리 국민들 간의 상호 문화 교류와 이해 증진을 위하여 센터 사무국 내 다목적 공간으로 아세안 홀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아세안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및 관광을 소개하는 세미나, 강좌, 워크숍,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아세안 홀 내에 아세안 회원국과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도서와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갖춘 '정보 자료 코너'를 통하여 일반 시민 누구나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우리는 친구》출간을 위해
원고 집필 및 감수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기관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고 집필 (가나다 순)

김윤희 동화작가/아세안 나라별 소개
김이재 경인교육대학 교수/아세안 음식 문화
조흥국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과 아세안의 교류사

감수 (한국 가나다 순/대사관 알파벳 순)

강영순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 · 인도네시아어과 교수
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HK연구교수
김홍구 부산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교수, (사)한국동남아연구소 소장
박장식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동남아지역원 원장
심두보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윤대영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인문학연구교수
이요한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 교수
조영희 (사)한국동남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최경희 (사)한국동남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홍석준 목포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Embassy of Brunei Darussalam
Royal Embassy of Cambodia
Embass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Embassy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Embassy of Malaysia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Embassy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Royal Thai Embassy
Embass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참고자료 및 문헌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경제협력개발기구 stats.oecd.org
ASEAN 사무국 www.asean.org
아세안가이드 (나라별 관광 정보)/한-아세안센터
동남아시아 사회와 문화/정영규/울국출판사
중학교 사회 1/교학사
고등학교 세계사/교학사
동남아학 총서/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사/조흥국/소나무
창덕궁/문화재청
한-아세안센터 www.aseankorea.org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www.unesco.or.kr
유네스코 세계 유산 센터 whc.unesco.org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창덕궁 www.cdg.go.kr
브루나이 www.jpm.gov.bn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www.indonesiaseoul.org/indexkorea
인도네시아 www.indonesia.go.id
한국 라오스 친선협회 www.korlaos.or.kr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 www.malaysia.or.kr
주한 필리핀 대사관 www.philembassy-seoul.com
주한 싱가포르대사관 www.mfa.gov.sg/seoul
싱가포르 www.gov.sg
싱가포르관광청 서울사무소 www.visitsingapore.or.kr
주한 태국 대사관 www.thaiembassy.or.kr
태국 www.thaigov.go.th
태국 관광청 www.visitthailand.or.kr
베트남 www.chinhphu.vn



발행일 2012년 2월 27일

발행처 한-아세안센터

편집·디자인 (주)우리글

주소 100-75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 빌딩 8층

전화 02-2287-1115~6

팩스 02-2287-1160

e-mail : info@aseankorea.org

website : <http://www.aseankorea.org>

blog : <http://blog.aseankorea.org>

ISBN 978-89-963628-8-3

이 책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아세안센터에서 기획 출판한 청소년 교육용 도서입니다.